Life p/16



반려동물 시장 1조8000억

metro®

메트로 2014년 11월 13일 목요일 제3094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20



비, 차기작은 중국 드라마



"선배님! 하이파이브~!"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풍문여고에서 고3학생들이 후배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톡톡 튀는 주부부업 아이템 '눈길'

앱 설치하면 소개자 보상
재능 거래 '끼마켓' 등장
대신 장봐주고 배송까지
모니터 요원 갈수록 늘어
경험 전수 '돌잔치 플래너'

불황 극복…육아·가사 함께하는 일자리 확산

#아이를 출산한 후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이소은(37)씨는 최근 경제적인 이유로 부업을 고려하고 있다. 남편의 월급은 제자리걸음인데 물가는 치솟고 아이의 교육비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취업도 생각해봤지만 육아와 가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재택 근무가 가능한 부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불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부업을 시작하는 주부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잡코리아가 기혼여성 3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9명은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답변이 56.6%로 가장 높았다. 특히 취업 시 '육아와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시간(71.5%)'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에 짬짬이 시간을 내어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이색 부업이 일거리를 찾는 주부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IT분야는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일할 수 있는 부업들이 많아 인기다. 모바일 앱 포털 서비스 '팟게이트'를 개발·운영하고 있는 오드엠은 올해 초 '애드픽(ADPick)'을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공식사이트에서 광고캠페인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중 타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앱을 골라 SNS를 통해 해당 앱을 소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을 하는 앱마케팅 플랫폼이다. 앱 설치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리워드앱 광고와 달리 소개자가 올린 포스트의 앱 설치 링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앱을 설치하고 실행한 횟수만큼 소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실사용자가 앱을 설치할 확률이 높아 소개자에게 지급되는 수익금도 일반 리워드앱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다. 덕분에 출시 11개월 만에 회원 수 22만 명, 회원들에게 지급한 누적 수익금은 8억원을 돌파했다.

'끼마켓'은 경력이 단절된 주부들도 자신의 재능과 장점을 상품화 해 그 재능을 필요로 하는 제3자에게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는 온라인 오픈 마켓이다. 디자인, 홍보·마케팅, 컴퓨터·기술, 생활서비스, 음악·영상, 비즈니스, 문서·리포트, 핸드메이드 등 모든 분야에서 '재능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고민상담, 편지쓰기, 지인대행 등도 가능하다.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수수료 없이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부의 살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업도 있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매력 넘치는 우리시장'은 상인회에서 고용한 베테랑 주부가 장보기를 대신해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대부분 살림 경험이 풍부한 30~50대 주부를 채용하고 있으며 경력에 상관없이 장보기에 자신있고 전통시장 동네에 거주하는 주부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주부들은 소비 생활에 가장 밀접한 만큼 모니터 요원으로 활약할 수 있다. 주부 모니터 요원은 기업의 신제품 아이디어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서비스에 대한 느낌이나 개인적인 의견을 나누고 공감하고 더 나은 방법을 토론하는 일을 한다. 또 모니터 요원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상품과 서비스를 살펴보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직접적인 수익 외에도 각종 제품을 받아 체험할 수 있으며 일주일에 한두 번 외출 삼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인기다.

출산·육아 경험을 살린 부업도 가능하다. 임부복 모델은 임신 경험이 있는 주부가 일반인 모델보다 더 섬세하게 임부복의 특징을 표현한다는 강점 때문에 주부를 선호하는 직업이다. 또 돌잔치 플래너는 돌잔치를 직접 겪어본 경험을 살려 자기 일처럼 꼼꼼하게 일할 수 있는 주부에게 적합하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수능 잘 보세요" 오늘 오후 답안지특별판 발행

성인 10명 중 한 명 '백수'로

공식 실업률의 3배↑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이 더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실상 실업자'라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공식 실업률인 3.2%의 3배가 넘는 수치다.

통계청은 '10월 고용동향 자료'를 통해 처음 공개한 '고용보조지표'가 10.1%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보조지표는 경제활동인구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합친 수치 대비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더한 수치의 비율이다. 통계청은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식 실업률에는 취업자 중 주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할 수 있는 시간과 관련한 추가취업가능자는 빠져있었다.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현실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잠재적으로는 취업이나 구직이 가능한 잠재경제활동인구도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반인의 통념상 실업자는 많은데도 정부의 실업률은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만들어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계산해 이날 처음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했다"며 "고용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지표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업률'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국명기자 kmlee@



박 대통령, 미얀마 안착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후 미얀마 네피도 국제공항에 도착, 전용기에서 내린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

연내 열릴 듯…다음주 中 시안서 인문공동위도

한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에 이어 고위급 외교·안보 대화와 전략대화의 개최를 추진하는 등 연말까지 고위급 교류를 계속한다.

1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한중 양국이 연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정부 대표로 참가하는 고위급 외교·안보 대화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 회의를 위해 김 실장은 지난 6월 임명된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소식통은 "양측간 연내 개최의 공감대가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실장과 양 위원간 대화가 열리면 이 자리에서는 지난 1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APEC을 무대로 진행된 한·미·중 3국의 연쇄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하기로 한 만큼 정체된 비핵화 대화 재개 움직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또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장예쑤이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수석대표인 차관급 전략대화도 연내에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에서 진행될 예정인 이 회의에는 양국관계와 한반도 정세 외에 지역·국제 현안도 의제다.

이와 함께 양국은 중국 산시성 시안에서 오는 20일 제2차 인문 교류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서먹서먹한 표정의 여야 혁신위원장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회 주최로 열린 2차 정당정책 토론회에 앞서 새누리당 김문수(오른쪽) 보수혁신특별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이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아까운 이유

기자 수첩
박 선 옥
<경제산업부 기자>

지난달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 공청회가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릴 뻔 했다 무산된 일이 있었다. 강당을 점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들로 인해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의 개회사 후 정작 중요한 토론은 취소된 것이다.

이날 현장에서 몸싸움까지 불사한 한 공인중개사는 공청회 자료에 있는 설문조사부터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에서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중개수수료가 비싸다"고 대답했는데, 질문이 "중개수수료가 비싼가?"였다는 것이다.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질문을 하는데 어느 누가 "싸다"고 대답하겠냐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질문을 "중개수수료가 싼가?"로 바꿨다면 "싸다"라고 답변하는 사람이 많았을까?

계약에 이르기까지 매도-매수인 또는 임대-임차인 사이에서 조율하고,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등 중개업소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또 2~6%에 이르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1% 미만인 우리나라의 수수료율은 오히려 저렴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일반인들이 중개수수료가 비싸다고 느끼는 데는 대부분의 중개업소가 여전히 주택 매매와 전·월세를 단순히 중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일 확률이 높다. 선진국에서는 주거·공업·상업용 전문 중개는 물론, 컨설팅·법률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중개수수료 인하안을 최선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중개업계 스스로도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준석 선장 살인 무죄 항소 검토"

김 법무차관 "판결서 검토해 사실관계 규명할 것"

김현웅 법무차관은 12일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 선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 항소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비경제부문 정책질의에 출석, 이 선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질의에 "이 선장에 대해선 다른 선원에게 명령했다고 하고 판결을 내린 것 같다"며 "재판 판결서를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통해 사실 관계를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항소 여부를 다시 확인하자 "그럴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판결문 검토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다"며 "추측건대 항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이씨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외교차관 "이승철 입국 거부 日 설명 요구"

●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12일 "일본이 가수 이승철씨의 입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에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입국 거부에 대한 정부의 조치와 관련, "도쿄 (주일 한국) 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에) 이유 설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 외교 당국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사유를 밝힐 수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野, 대북전단 살포 통일장관 승인안 발의

●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통일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가 추진,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남북 교역 대상 물품에 통화나 보조기억매체, 광고선전물, 인쇄물 등을 포함했다. 또 '반출·반입' 행위에 '풍선기구 등의 이동·수송장비를 이용해 인쇄물 등을 불특정다수에 살포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장염 증세로 재입원

● 장염 증세로 서울대병원에 재입원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 1주일여 만인 이번주에 퇴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한양대 특임교수는 12일 "지난달 16일 퇴원하신 이후 건강이 상당히 양호하셨던 아버지가 지난 6월 가벼운 장염 증세로 서울대병원에 잠시 입원했다"며 "다시 건강이 회복돼 이번 주 퇴원하실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누리, 12개 당협위원장 공모

서울 중구 경쟁 치열

새누리당이 12일 공석인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공모를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이날부터 14일까지 위원장이 비어있는 당협 12곳의 조직위원장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 이어 18일 당 조직강화특위 회의를 개최하고 조직위원장 선정 방식과 향후 심사 일정 등을 논의한다.

이번 공모 대상 지역은 ▲서울 7곳(중구·성북갑·강북을·노원병·마포갑·마포을·관악갑) ▲경기 4곳(수원갑·수원정·부천원미갑·시흥을)▲충북 1곳(청원군) 등 총 12곳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은 2년여간 당협위원장이 공석이었던 서울 중구로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 간의 신경전이 벌어질 조짐도 나타났다.

현재 여성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민현주·신의진·문정림 의원 등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데다 지상욱 전 자유선진당 대변인이 오래전부터 공을 들여온 지역이어서 최고 경쟁률을 보이는 동시에 가장 치열한 쟁탈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 장안에서도 서청원 최고위원의 측근인 박종희 전 의원과 청년 비례대표 출신의 김상민 의원이 나란히 눈독을 들이고 있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부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 대해 당내에서 불필요한 계파 갈등 등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원 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정기자

전 검찰총장 성추행 논란

골프장 여직원 스킨십 의혹…고소장 접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여성 캐디 성추행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전직 검찰총장이 경기도내 한 골프장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성폭력수사대는 지난 11일 전 골프장 여직원 A씨가 전 검찰총장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아버지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6월 밤 전 검찰총장이 여직원 기숙사에 찾아와 자신을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맞춤했으며 '내 아내보다 예쁘다'는 등의 말을 하며 5만원을 쥐어주고 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포천의 한 골프장에서 2년간 안내데스크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사건 직후인 지난해 6월 말 사표를 냈다. 전 검찰총장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전 검찰총장 B씨를 상대로 성추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정우기자 cyclone@metroseoul.co.kr



남한강 건너는 전차 적의 전면전 도발에 대비해 최대규모로 펼쳐지는 호국훈련 2일째인 12일 오전 경기 여주 남한강 일대에서 육군 제11기계화보병사단 K200 장갑차가 자력으로 강을 건너고 있다. /뉴시스

서울 육아휴직자 9.6% 늘었다

1만8197명…男 53% 증가

서울 지역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남성의 급증세에 힘입어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1만 8197명으로 작년의 1만 6600명보다 9.6% 늘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811명(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4.4%)으로 작년의 529명(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3.1%)에 견줘 53.3%나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수는 302명으로 작년의 206명과 비교했을 때 46.6% 늘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 달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불법·불편사항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박종길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지난 10월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고,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상향됨에 따라 앞으로 남성을 비롯한 육아휴직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주영기자 boa@

제2연평해전 유족, 군지휘부 상대 패소

2002년 6월 발발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과 부상 장병이 당시 군 지휘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2일 고(故) 한상국 중사의 부인 김한나(40)씨 등 12명이 김동신 전 국방장관과 이남신 전 합참의장 등 당시 군 지휘부 11명을 상대로 낸 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군 수뇌부가 북한의 공격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일부러 숨겼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들이 피해 군인들을 고의적으로 살해하거나 상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들이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제2연평해전 당시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했다.

/유주영기자

"실적압박 LGU+상담원 자살…진상규명 촉구"

청년단체 청년유니온은 12일 서울 중구 LGU플러스 서울 고객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적압박에 시달리다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담원 이모(30)씨와 관련, LGU플러스 측의 사과와 진상 규명 등을 촉구했다.

청년유니온은 "지난달 21일 LGU플러스 전주 고객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던 청년노동자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그는 일정한 판매량을 채우지 못하면 퇴근하지 못하는 등 실적압박이 강제하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동청에 고발합니다'로 시작하는 이씨의 유서에는 그가 회사로부터 인터넷전화, IPTV 등 판매를 강요받았으며 할당된 판매량을 채우지 못하면 퇴근을 하지 못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추가근무수당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와 관련, LGU플러스 측은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이번 사안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주영기자

'인터스텔라'와 '노인 정치'

여의도 패트롤

흥행 중인 영화 '인터스텔라'에선 블랙홀 근처 우주 여행을 한 아버지가 지구에 남은 딸보다 늙지 않는다. 그 장면을 보고 필자는 엉뚱하게도 늘어나는 노년층과 노후에 대한 걱정이 들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가 그에 대한 대비는 안돼 있기 때문이다. 도심까지 진출한 요양원을 보면 고령화에 따른 대비가 고작 요양원뿐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역위원장을 공모 중인데 신청자 중에 눈에 띄는 인물이 있다. 오유방 변호사.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이름이지만, 현역 법조인이고 전직 의원이다. 최근 교황 방문시 정치권 인사들의 교황 방문 행사 조율을 담당했을 정도로 한국 천주교와의 인연도 깊고 사회 활동도 활발하다.

그에게 눈이 가는 이유는 이력이 다채롭기 때문이다. 1973년 9대 국회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33세에 국회의원이 됐고, 그 해 대한하키협회 회장을 맡는 등 30~40대를 누구보다 화려하게 보냈다.

10대 국회인 1979년 12월, 박찬종 의원 등 10여 명과 함께 공화당 내 정풍운동을 했다가 다음 해 제명당하기도 했다. 이후 13대에서 재기해 민정당 간판으로 서울 은평갑에서 당선됐다.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깊다. 민자당 소속이었던 그는 DJ 정계 복귀 후 아태재단 후원회 중앙회장을 맡으며 DJ 밑으로 들어갔고 국민회의 소속 용산지구당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정치권과 멀어졌지만, 올해 지방선거에선 야당 용산구청장 후보를 도왔다. 그는 2008년에도 한나라당에 공천 신청을 했었고 아직 현역에 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0세 시대다. 오유방의 복귀를 은퇴 정치인의 노욕이라고만 볼 것은 아니다. 미국, 일본이 정치 선진국이라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80세가 넘은 고령의 현역 정치인이 흔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72세에 대통령에 취임했다. 50대만 되면 직장에서 은퇴 압박을 받는 우리 현실에서 70대 정치인의 복귀는 나쁜 뉴스는 아니다. 새정치연합 설훈 의원이 최근 국감장에서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임명된 자니 윤씨의 나이를 문제삼은 발언으로 노인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지난 8월 별세한 서상록 전 삼미그룹 부회장은 노인들의 권익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노인권익보호당' 후보로 2002년 대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나이란 상대적이다. 오 변호사를 블랙홀 근처로 떠났던 우주인쯤으로 여겨 복귀를 환영하고픈 생각이 든다. 김기춘 비서실장도 또래다. 70대의 복귀가 요즘 트렌드로 보이는 게 무리도 아니다. 과연 오 변호사는 야당 지역위원장으로 정치 인생의 2막을 새로 쓸 수 있을까. 오유방을 기억하는 노회한 정치인들은 그의 복귀를 응원하리라 믿는다.

/유보좌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신형 대국관계 구체화"

시진핑, 오바마와 비공식 '노타이 회담'…중국 '특수성' 강조

"중국과 미국의 신형 대국관계를 개념으로만 둘 수 없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가진 비공식 회동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이 전했다.

시 주석은 "일이 있으면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주고받아야 한다"며 신형 대국관계를 구체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이번 발언은 앞으로 양국이 구체적인 외교·안보 현안을 테이블에 올려 논의를 심화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신형 대국관계 건설에 합의했지만 양국이 받아들이는 신형 대국관계의 의미는 다르다.

중국은 신형 대국관계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패권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한다. 반면 미국은 중국이 기존 패권 질서에 도전하지 않는 선에서 '전략적 협력'을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시 주석은 미국이 중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국과 미국은 국가 상황과 역사, 문화, 발전 단계가 달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취동화이'(聚同化異·같은 것은 취하고 다른 것은 화해한다), '화이부동'(和而不同·남과 사이 좋게 지내되 무턱대고 좇지는 아니함)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지지한다"면서 "중국을 억제하거나 봉쇄할 의도가 없다. 그것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비공식 회동은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양국 정상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편한 차림으로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시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공식 정상회담도 했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와 에볼라 바이러스 문제 등 국제적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La Teletón 2014 superó la meta y recaudó más de S/.6 millones

Los peruanos nos unimos por los niños del Hogar Clínica San Juan de Dios. Se llegó a la meta de S/.5 millones una hora antes del cierre.

21시간 만에 22억원

metro Peru

'텔레톤' 성금 기록



페루 '텔레톤'이 21시간만에 22억원의 성금을 모으는 기록을 세웠다.

텔레톤은 텔레비전과 마라톤의 합성어다.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 프로그램으로 20시간 넘게 중간 광고 없이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1978년 칠레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주변 중남미 국가로 퍼져 나갔다.

이번 텔레톤 모금의 대상은 '산 후안 데 디오스 병원'이다. 이 병원은 불우한 가정의 환자나 불치병 어린이를 치료하는데 최근 재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4 텔레톤'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오후에 시작해 이튿날 오후 8시에 끝났다. 4개의 TV채널과 1개의 라디오 채널로 진행됐다.

행사 시작 전에 세운 올해의 목표 금액은 500만 누에보 솔(약 18억 5000만원)이었다. 그러나 행사 마감 이후 집계된 금액은 605만 누에보 솔(약 22억 4000만원). 목표 모금액보다 30% 이상 많은 액수다.

텔레톤은 단순 모금 활동을 뛰어넘어 국가 구성원 모두가 하나로 뭉치게 만든다. 일반 시민은 전화 기부로 십시일반 정신을 발휘했고, 정부와 기업도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텔레톤 재단의 이시드로 바스케스 신부는 "지금껏 목표 금액을 넘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 감격스러워했다. 그는 "조국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리=조선미기자

"최고 부자 돼도 행복하지 않아요"

알리바바 회장 스트레스 호소…"게이츠와 자선활동 경쟁"

마윈(잭마) 알리바바그룹 회장이 "최고 부자가 돼도 행복하지 않다"며 정신적 압박감을 호소했다.

마 회장은 11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잭(마 회장의 영어 이름), 부자인 건 좋은거야'라고 말한다. 부자인 게 좋은 건 맞지만, 중국 최고 부자인 게 좋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마 회장은 개인 자산 195억 달러(약 20조 4700억 원)로 올해 중국 최고의 부자가 됐다. 지난 9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를 뉴욕 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한 덕분이다.



마윈 알리바바그룹 회장이 11일(현지시간) '독신자의 날' 할인판매 행사가 끝나기 직전 중국 저장성 항저우 본사에서 기록적인 매출에 감사를 표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마 회장은 "주가가 오르면 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도 높아진다.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걱정할 것도 많다"며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돈을 보고 당신을 에워싸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 회장은 이 같은 고통을 덜기 위해 재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마 회장은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훨씬 어렵다"면서 부호이자 자선사업가인 빌 게이츠를 거론했다. 그는 "지금까지 번 돈을 자선활동을 위해 누가 더 효과적으로 쓰는지 게이츠와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미기자

'アイ폰6' 99대로 고백

metro HongKong

하트 모양 만들어

최근 중국 광저우에서 한 남성이 아이폰6 99대로 사랑 고백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 남성은 평소 회사에서 좋아하던 여성에게 회사 건물 앞에서 아이폰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 마음을 전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60만 위안(약 1억 7000만원)을 투자한 '아이폰 사랑'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동료들의 압박에 못이겨 현장에 나타난 여성은 남성의 고백에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아이폰6 한 대만 줘도 좋겠다", "솔로 탈출이 이렇게 힘들다니", "너무 물질적인 고백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리=조선미기자



입사 10개월 만에 월 소득 700만원

무릎 다쳐 축구선수 은퇴…우수사원 세 번·사내 기네스에 올라

금융가 사람들

■ 박혜원 삼성화재 SM

박혜원 삼성화재 세일즈메니저(SM, Sales Manager)는 전도 유망한 축구선수였지만 목표와 열정을 통해 지금은 입사 10개월 만에 월 700만원 소득으로 사내 기네스에 오른 재무설계사(RA, Risk Advis)가 됐다. 최근 본지와 인터뷰를 한 박 SM은 성공의 요인으로 목표에 대한 열정과 자신에게 필요한 조언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래 내로라하는 전도 유망한 축구선수였다. 초등학교 4학년때 우연히 스카우터의 눈에 띄어 축구를 시작한 그는 남들보다 운동신경이 뛰어났던 터에 감독의 권유로 5학년때 프랑스로 축구 유학을 떠났다.

이어 유소년 국가대표로 중국에 진출하기도 했고 축구명문 대신중·고교를 진학해 독일 유학을 병행하며 소년체전, 교육감배 등 대회를 휩쓸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국내 프로팀과도 계약을 하고 졸업하면 프로팀에 입단하기로 했다.

박 SM은 "당시 또래선수들보다 기량이 좋아 2년 선배들하고 축구를 했다"며 "축구 하나는 국내에서 가장 잘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 축구하면 전국에서 한손가락에 꼽힐 정도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하지만 그는 불의의 사고로 결국 축구를 포기해야만 했다.



전도 유망한 축구선수였지만 불의의 사고로 은퇴할 수밖에 없었던 박혜원 삼성화재 세일즈매니저(SM). 그가 남다른 열정으로 입사 10개월 만에 월 700만원 소득으로 사내 기네스에 올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손진영기자 son@

고등학교 2학년 말 효창운동장에서 시합을 하다 무릎을 심하게 다쳤다. 1년 동안 재활훈련을 했지만 예전 몸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결국 프로팀과의 계약도 파기됐다.

이후 프로팀이 아닌 실업리그 선수로도 활약했지만 몸은 회복되지 않았고 군대를 다녀와서는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아버지가 하는 고물상에서 일을 하기도 했다.

박 SM은 "같이 축구를 하던 조재진·정조국·조성환 등이 프로에서 뛰고 있을 당시 부모님이 마음이 아프다며 축구경기를 보지 않았다"며 "축구를 그만두고서 미래가 막막했다"고 당시 상황을 털어놨다.

힘든 시간을 보낸 그는 우연한 기회에 삼성화재에 입사하게 됐다. 어머니가 타던 스쿠터에 삼성화재 보험설계사(RC)가 쪽지를 남겨 놓은 것. 쪽지의 내용은 법 개정으로 스쿠터도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한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어머니는 삼성화재와 보험계약을 하고 재무설계도 받았다. 그때 그 RC가 새로 신설되는 SRA (Samsung Risk Advis)팀을 권유했다.

어렸을때부터 공부보다 운동이 좋았고 아는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응하기 쉽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열심히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반년 만에 월 우수사원에 3번이나 뽑혔다.

박 SM은 성공 비결에 대해 "어디서나 실패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며 "열정과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요즘 다시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축구할 때는 김희태 감독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자신을 프랑스에 유학을 보내준 것도 김 감독이다. 프로팀에서 받아주지 않던 박지성을 키워낸 김 감독은 재활로 힘들어하던 박 SM도 명지대로 불러 훈련을 시켰다.

삼성화재에서는 허기철 지점장(BM)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허 지점장은 박 SM에게 고객응대 방법과 재무설계에 대한 세부지식 습득에 큰 도움을 줬다.

"축구를 할때에는 김 감독님을, 삼성화재에서는 허 지점장을 만난 것이 큰 힘이 됐다"며 "성공을 위해서는 좋은 조언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중견기업 글로벌 육성 위한 MOU 우리은행은 12일 서울 소공로 본점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은행과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순우 은행장(사진 오른쪽)이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제공

'희망이음운동' 업무협약 체결

KDB생명은 지난 10일 서울시 용산구 회사 본관에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사회적 기업 '희망이음 평생교육원'과 희망이음운동 전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장애인문화협회와 희망이음 평생교육원이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희망이음운동은 장애인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연계 프로그램이다.

KDB생명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학생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임직원과 설계사 기부를 통해 장애인 교육 지원 사업을 후원한다. 장애인 학생들이 신체적·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무료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희망이음 밥차 전국릴레이 ▲장애 청소년 예술제 행사 지원 ▲장애 학생과 1인1촌 맺기 운동 등 다양한 지원 활동도 추진한다.

조재홍 KDB생명 사장은 "보험의 본질이 상부상조와 나눔에 있는 만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민간기업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왼쪽부터)조재홍 KDB생명 사장, 안중원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회장, 현재익 희망이음 평생교육원 대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KDB생명 제공



기업은행 '참! 좋은 사랑의 밥차' 후원

IBK기업은행은 지난 11일 충북 청주시에 무료급식 차량인 '참! 좋은 사랑의 밥차'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박춘홍 전무이사(사진 가운데)는 충북 청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배식 봉사활동을 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모두 28대의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며 무료 급식을 해오고 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market index <12일>

코스피	1967.27	(+4.27)
코스닥	546.46	(+1.33)
금리(국고채 3년)	2.20	(+0.02)
환율(원·달러)	1095.50	(−0.10)



"인터넷 20년 역사를 한눈에!" KT는 12일 서울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대한민국 인터넷 상용화 20주년을 기념하는 'To Better Lifestyle with internet' 도서 출판 기념 간담회를 개최했다. /KT 제공

기업 85% 인근 거주자 선호

회사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 합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324개사를 대상으로 '채용 시 인근 거주자 선호 여부'를 조사한 결과, 85.2%의 기업이 '선호한다'고 답했다.

기업 형태별로는 중소기업(86.4%), 중견기업(82.4%), 대기업(72.2%) 순으로 인근 거주자를 선호하고 있었다.

가까운 곳에 사는 지원자를 선호하는 이유 1위는 '업무 피로감이 덜할 것 같아서'(41.3%)가 꼽혔다. 이어 '퇴사율이 낮을 것 같아서'(39.5%), '근태가 좋을 것 같아서'(36.2%), '업무 집중도가 더 높을 것 같아서'(24.6%) 등이 거론됐다.

한편 설문 기업 중 37%는 역량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거주지가 가까워 합격시킨 지원자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윤희기자 unique@

연금복권520 제176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20년	1조	462771
		4조	478839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638281
4등	100만원	각조	36589
5등	2만원	각조	987
6등	2000원	각조	51, 94
7등	1000원	각조	4, 7

출처 : 나눔로또 공식홈페이지(www.nlotto.co.kr)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이통3사, '스마트홈' 리더십 강화

통신·가전·홈기기 협력 통한 시너지 겨냥

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홈 사업 강화에 나섰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시장에서 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수순이라는 관측이다.

스마트홈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주거 공간에 융합시켜 가정 내 가전제품·홈기기에 대한 원격 제어, 모니터링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가전·홈기기 제조사들과 손잡고 스마트홈 사업에 나섰다. SK텔레콤은 자사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경동나비엔(보일러), 게이트맨(도어락), GE Lighting(조명), 위닉스(제습기), 오텍캐리어(에어컨) 등과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스마트홈이 대중화 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상용화에 제품의 가격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부분을 신경썼다. 이에 SK텔레콤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의 제휴사별 시장 주력 제품에 스마트홈 기술을 우선 적용하고 별도 장비 구입없이 유무선 공유기만 있으면 사용가능하도록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SK텔레콤은 이에 대한 일환으로 현대리바트와 함께 국내 최초로 ICT융합 기반의 신개념 가구인 '스마트 퍼니처'를 선보였다.

스마트 퍼니처는 주방 가구 문짝이나 화장대 등에 터치스크린이 구현된 거울을 설치하고 유무선 인터넷망을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신개념 가구다. 스마트폰 미러링 서비스 등 특화 서비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SK텔레콤과 현대리바트는 내년 2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10여종의 스마트 퍼니처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매출 5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LG유플러스는 홈CCTV '맘카2'와 '홈보이 G패드'를 앞세워 스마트홈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 지난 9월 출시한 홈CCTV 맘카2는 기존 맘카의 비디오 기능은 대폭 업그레이드 하고 타사 인터넷 고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홈보이 G패드는 전화, 오디오, TV, e-북, 보안서비스 등 디지털 가전 기기의 다양한 기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올인원 기기다.

올해 한층 업그레이드한 홈보이 G패드는 최근 각종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PPL(제품 간접 광고)을 통해 주목받고 있다.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경우 아이들이 홈보이를 통해 각종 애니메이션을 시청하고, 노래와 춤을 추는 모습 등을 통해 광고 효과를 톡톡히 얻고 있다. 이 같은 PPL 효과에 힘입어 홈보이 G패드의 매출도 크게 늘었다는 후문이다.

LG유플러스는 향후 스마트홈 서비스 구축을 위해 다각도로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KT도 각종 스마트홈 관련 전시회 등에서 자사의 ▲스마트홈 폰 미니 ▲스마트홈 패드 2 ▲올레tv 스마트 ▲KT텔레캅 서비스 등을 선보이고 있다. 이처럼 다분야의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장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야말로 사물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스마트홈을 통한 이통사의 시장 리더십 경쟁이 주목된다"면서 "통신과 가전, 보안 등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보다 편리한 스마트 세상이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주택담보대출만 6조원 늘어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은 547조4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6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이는 주택거래량 증가 등의 영향을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이재용 부회장 3남매 투자익 300배 예상

삼성SDS 상장 뒤 장외가 유지하면 5조2300억

14일 상장하는 삼성SDS의 주가가 강세를 보일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등 삼남매는 최소 300배의 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금융감독원, 재벌닷컴,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SDS의 주가는 장외거래 가격 수준인 3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은 주당 평균 1180원에 삼성SDS 주식을 매입했다. 이부진·이서현 사장의 평균 매입 단가는 1112원.

이 부회장이 11.25%의 지분을 갖는 데 쓴 돈은 103억원가량이며



왼쪽부터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 /연합뉴스

이부진·이서현 사장은 34억원씩을 들였다.

상장 뒤 삼성SDS 주가가 현 장외가 수준인 35만5000원으로 오르면 이 부회장 삼남매의 지분가치는 5조2334억원으로 상승한다. 이는 평균 투자액의 307배 수준이다.

이 부회장의 보유 지분 가치는 공모가를 적용한 1조6500억원에서 3조900억원으로 투자액 대비 300배의 차익이 예상된다. 이부진·이서현 사장의 지분가치는 각각 1조717억원씩으로 성과는 약 318배.

삼성SDS 주가가 상장 후 50만원까지 가면 삼남매 보유 지분은 7조3710억원에 육박하며 투자액 대비 430배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보유 지분 가치는 이 부회장이 4조3419억원으로 투자액의 423배, 이부진·이서현 사장은 1조5061억원씩으로 투자액의 450배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이 부회장 등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은 6개월간 의무보호예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로 6개월이 지나야 지분을 팔 수 있다. /박성훈기자 zen@

한화케미칼 대박 '다빅트렐' 허가

한화케미칼이 자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인 '다빅트렐(R)'의 시판허가를 식약처로부터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다빅트렐(R)'은 미국 화이자의 류마티즘 관절염 치료제인 '엔브렐(Enbrel)'과 같은 성분의 세계 최초 복제약이다. 한화케미칼은 2012년 식약처에 시판 허가를 신청한 지 2년 만에 허가를 받았다. 현재 국내 판매는 물론 다국적 제약사와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바이오시밀러는 생물의 세포나 조직 내에 존재하는 물질을 이용해 제조하는 바이오의약품(생물의약품)의 복제약이다. 특허가 끝난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한 성질을 갖는다. 화학반응으로 제조하는 합성의약품과 달리 인체에 부작용이 적은 것이 특징이며 일반적으로 주사제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미국 화이자가 독점하다시피 한 류마티즘 관절염 치료제의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9조원대였다"며 "다빅트렐이 시판되면 류마티즘 관절염 치료제의 가격이 대폭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국내 환자가 다빅트렐을 접하기 위해서는 좀더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김민준기자 mjkim@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처음처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
처음처럼
부드러운 18도
알칼리환원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모바일뱅킹이 '대세'

은행권 수신상품 '兆'단위 넘어서

모바일 금융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가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은행들도 모바일뱅킹 강화에 나서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 수신상품들의 잔액이 이미 조 단위를 넘어서고 있다.

국민은행의 스마트폰 예금 상품의 가입 잔액(10일 현재)은 1조7892억원(15만3972좌)에 달한다. 우리은행의 스마트폰 전용 예금상품 3종의 잔액도 총 9974억원(7만2161좌) 수준이다.

수신상품 뿐만 아니라 절차가 복잡한 대출상품으로도 모바일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 아파트론'(가칭)을 내년 초 출시한다. 신용대출이나 전세대출을 넘어 절차가 까다로운 주택담보대출까지 고객이 은행 지점을 찾을 필요 없이 모바일로 신청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모바일뱅킹이 최근에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용도로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뱅킹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한국은행의 2분기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 등록고객수는 4300만명으로, 전 분기 대비 6.5%(264만명) 증가했다. 1년 전(3130만명)과 비교하면 37% 급증한 수준이다.

하루 평균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 이용건수는 2만9000건, 하루 평균 자금이체 실적은 1조7000억원에 달했다. 전 분기 대비 각각 7.3%, 4.1%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시기 인터넷뱅킹의 이용건수는 하루 평균 6만4000여건. 아직까지는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 이용건수의 두 배 수준이다. 다만 이 격차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여서 모바일뱅킹 이용 건수가 인터넷뱅킹을 추월할 날도 머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지기자 minji@

보험사 TV광고 잇단 '철퇴'

라이나생명 기관주의…AIA·ACE손보 방통위 권고 처분

라이나생명의 케이블TV 광고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최근 보험사의 TV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12일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11일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으로 라이나생명의 TV광고에 대해 과징금 2억750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를 조치했다. 관련 임직원 5명에 대해서는 감봉·견책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광고는 지난 2012년 4~6월 케이블TV를 통해 판매한 '무배당 가족사랑 플랜보험'이다.

라이나생명은 이 광고에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과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을 누락했다. 판매 과정에서는 보장금액이 크다는 내용만을 집중 부각해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상품을 오인하게 만들어 353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에는 AIA생명과 ACE손해보험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TV광고 28건에 대해 '권고' 조치를 받았다.

권고 처분을 받은 상품은 AIA생명의 '뉴원스톱 암보험'(12건), '꼭필요한 100세암보험'(1건), '무배당 꼭필요한 건강보험'(3건)과 ACE손보의 'New 치아안심보험'(12건) 등이다.

이들 상품광고는 보험업법 제9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과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등)의 규정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험상품의 명칭 ▲주계약·특약별 보험료 예시 ▲주요 위험·보험금 예시 ▲해약환급금 예시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업체들은 당국의 제재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지만 과도한 규제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징계를 받은 라이나생명 광고의 경우 이미 2년 전 광고로, 업계에서는 이번 징계가 최근 금감원이 보험광고를 심의하고 있는 생명보험협회의 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선조치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 광고는 당시 생보협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케이블TV에 방송됐다.

방통위가 제재한 AIA와 ACE손보 광고도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에 크게 위반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AIA생명 관계자는 "그간 제재 조치는 있었지만 '권고' 조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보험법에 이미지광고의 경우 해당 상품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진 않고 있는 만큼 일부분에 대한 제재조치는 모호한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까지 이미지광고의 요건을 구체화한 '보험업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4-15호)을 입법예고하고 시행하려 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KB 지배구조 정착 프로젝트 추진

사외이사 사퇴 '사실상 거부'

KB금융지주 이사회가 1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모범적인 지배구조 정착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을 결의했다.

또 임시이사회 직후 공석인 국민은행장 후보로 윤종규 KB금융 회장을 내정했다. 윤 내정자는 오는 21일 열릴 은행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지난 2008년 9월 KB금융지주가 출범한 이후 유지된 현재의 지배구조 전반을 재검점하고, KB금융그룹의 모범적인 지배구조 정착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 TFT'를 구성하기로 했다.

TFT 구성은 전략기획담당상무, HR담당상무, 준법담당상무, 앞으로 선정될 외부 컨설팅업체가 참여하기로 했다. 간사는 이사회사무국장이 맡는다.

이사회는 또 오는 21일 당사 대표이사 회장 및 KB국민은행 은행장으로 선임 예정인 윤종규 내정자의 보수와 관련, 겸임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급여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그동안 사퇴 압박을 받아온 KB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이 사실상 사퇴 거부 의지를 굳힌 듯한 행보를 보여 금융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김민지기자



저개발국 아동위한 '36.5°C 티셔츠·가방' 제작 신한카드 는 임직원들이 본사 10층에 모여 저개발국가 아동들에게 선물할 티셔츠와 가방을 손수 만들었다고 12일 밝혔다.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사진 왼쪽)이 임직원과 티셔츠를 꾸미고 있다. /신한카드 제공



3%대 금리 위안화예금 특별판매 하나금융그룹은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함께 'Hi China 위안화 정기예금'을 올해 말까지 4억원 한도로 특별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판 예금에는 최고 0.9%포인트의 우대이율이 적용돼 만기 6개월짜리는 연 3.0%, 만기 1년짜리는 연 3.1%의 금리를 준다. /하나금융지주 제공

은행 상속예금 서류 12월부터 통일

최근 사망한 모친의 예금을 지급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한 이경진(37·가명)씨는 은행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 추가 서류를 발급하는데만 하루를 다 보냈다. 이후 모친 명의의 소액 예금 해지를 신청한 이씨는 은행으로부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 결국 해지하지 못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상속예금에 대한 불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은행연합회, 은행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상속예금 요구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통일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은행별로 제각각이던 징구서류는 하나로 통일되며 은행의 공통적인 기준안을 통해 불필요한 서류는 사라진다.

현재 상속예금 관련 징구서류는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 등으로 나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5개 은행은 필수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만 징구하는 반면, 12개 은행은 3~4개 이상의 서류를 징구하고 있다.

이 결과 소비자의 민원과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앞으로는 상속인 실명확인증표와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필수적으로 징구하고 제적등본과 사망확인서는 필요할 때만 징구키로 했다.

100만원 이하의 소액예금도 간편하게 개선된다.

공동 상속인 가운데 1명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없이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청구할때 대부분의 은행은 영업점장 전결로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고 있어 민원 소지가 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 영업점과 홈페이지 등에 100만원 이하의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장을 비치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거래조회 결과 통보시에도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국내 증권사 동남아 시장 공략 가속화

issue&view
교두보 확보 잰걸음

유진-태국 아이라증권 제휴, 대우·키움은 인도네시아 진출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증권사들이 최근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증시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특히 내년 말 아세안(ASEAN) 경제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미리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기존 대형 증권사는 물론, 중소형 증권사들도 잇따라 동남아행에 나섰다. 기존 브로커리지 업무는 물론, 해외 투자은행(IB) 업무까지 영역을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10일 태국 아이라증권과 업무제휴(MOU)를 체결하고 현지 시장에서 브로커리지는 물론, 기업공개(IPO)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국 방콕에 본사를 둔 아이라증권은 2004년 설립된 중형 증권사로서 브로커리지 분야에 특화됐다.

그러나 이번 MOU를 통해 향후 인수·합병(M&A)과 이중상장(dual listing) 업무를 확대할 전망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이라증권은 한국의 예탁주식증권이나 중소형 기업을 현지 상장할 방침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7월 인도네시아 발부리증권과의 MOU를 통해 조만간 인도네시아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며 라오스와 캄보디아 시장에서도 금융업 진출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태국기업이나 한국 기업을 현지 상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오너기업으로서 의사결정이 빠른 점 등 운용철학이 비슷해 향후 현지 MOU를 통한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유진투자증권이 IPO를 맡았던 코스닥 상장사 엑세스바이오에 주목한다.

진단시약 전문업체인 엑세스바이오는 미국 한상기업으로서 지난해 5월 말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이 회사의 주요 제품군 가운데 G6PD(효소 결핍에 의한 용혈성 빈혈) 진단 키트는 태국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임상이 완료됐고 추후 현지 수주 매출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동남아 시장에서 잘 알려진 업체이므로 향후 현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IB 업무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편 태국보다 앞서 국내 증권사들이 진출한 인도네시아 시장에는 이미 KDB대우증권과 키움증권 등이 자리를 잡았다.

현지 증권사 인수를 통해 진출한 이들 증권사는 온라인 트레이딩 중심의 리테일 영역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을 공략 중이다.

키움증권의 경우 자사의 강점인 리테일 분야의 글로벌화를 꾀한다. 대우증권은 추후 IB 업무 확장을 통한 종합증권사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증권회사의 해외 법인 및 지점, 사무소는 총 87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9년 이후 5년간 7곳이 늘었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증권사마다 특화 분야를 갖고 해외 진출에 나서고 있다"며 "그 중에서 동남아 시장은 신흥시장으로서 성장성이 높은 반면, 자본시장은 발달 단계에 있고 아시아 문화가 비슷한 점에서 국내 증권사의 진출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소 동반성장 위한 업무협약 IBK기업은행은 1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상공회의소 회원기업에 맞춤형 컨설팅과 판로개척, 인력채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김영규 기업고객본부 부행장(왼쪽)과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제공

삼성생명 '골드연금보험' 수익률 1위 차지

금소연, 컨슈머리포트 BEST 10 발표

지난달 연금저축 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품은 삼성생명의 골드연금보험(확정이율형)으로 조사됐다.

12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소비라이프Q 11월호에 '금융상품 컨슈머리포트 BEST 10'을 이같이 발표했다.

금소연은 컨슈머리포트 BEST 10은 금소연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금융상품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을 매월 발표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 골드연금보험(확정이율형)은 판매 이후 연평균수익률 기준 6.12%로, 전체 금융사 상품 중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은행권은 부산은행의 '연금신탁 안정형 제1호'(5.52%)와 '연금신탁 채권형 제1호(4.9%), 신한은행 '연금저축신탁 채권형 제1호'(4.59%) 등 순이었다.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가 '소득공제단체보험'(5.25%), '소득공제단체보험Ⅱ'(5.21%), '소득공제단체보험Ⅲ'(4.95%) 등 삼성화재 상품이 모두 수위권을 차지했다.

생보사는 삼성생명 '골드연금보험(확정이율형)'(6.58%)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삼성생명 '골드연금보험(확정이율형)'(6.12%), 우리아비바생명 '럭키라이프연금보험'(5.82%) 등 순이었다.

목돈마련상품(36개월)금리는 수협 '파트너가계적금'이 3.2%로 36개월 금리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수협 'SH월복리자유적금'(3.1%), 수협 '더플러스정액적금'(3.1%)로 수협이 3위까지 독차지했다.

신용등급 5등급 기준 일반신용대출의 경우 부산은행이 4.84%로 가장 낮았고 하나은행(4.93%)과 농협(4.98%)이 그 뒤를 이었다.

변액보험 연환산 수익률은 KDB생명 'SOC주식형'펀드가 19.44%로 가장 높았다. 푸르덴셜생명 '롱텀밸류주식형'펀드(19.01%), 미래에셋생명 '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 주식형' 펀드(18.85%)가 2, 3위를 차지했다.

변액보험 1년수익률은 AIA생명 '중소형주식형'펀드가 17.0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미래에셋생명 '인디아주식안정성장자산배분형'펀드가 15.28%로 2위를 차지했고,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미국재간접형'펀드가 15.15%로 3위를 차지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KB, 행복노후설계 세미나 '눈길'

KB국민은행이 오는 24일 광주지역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부산, 대전, 서울지역에서 'KB골든라이프 행복노후설계' 전국 릴레이 세미나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전국 릴레이 세미나는 전국 4개 지역(광주, 부산, 대전, 서울)에서 약 1000여명의 고객을 초청해 은퇴노후설계 특강, 부동산 특강, 명사특강(인문학 및 건강) 등 3가지 세션으로 진행된다.

은퇴노후설계 특강에는 KB국민은행 WM사업부의 이정걸 재테크팀장과 강경훈 경제학 박사가 각각 '행복한 내 인생의 자산관리'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합리적 자산관리'를 주제로 베이비붐 세대의 제2의 인생을 위해 고령화, 저성장의 경제환경 속에서 노후준비실태와 노후설계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노후설계 방안에 대해 강연한다.

부동산 특강에는 박원갑 KB국민은행 WM사업부의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임채우 부동산 전문위원이 부동산에 대한 고객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노후준비를 위한 부동산 자산 리모델링 전략'과 '수익형 부동산 전망과 투자전략'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명사 특강의 첫 번째 강좌는 인문학 특강으로 포스코 전략대학 석좌교수이자 민족문화 컨텐츠연구원장인 박재희 교수를 초청해 '고전에서 배우는 유쾌한 행복론'이란 주제로 공자, 노자, 손자의 지혜를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인간이 갖춰야 할 기본 도리와 덕목 등에 대해 강연을 한다.

두 번째 명사특강인 건강 강좌에는 권오중 의학박사가 '행복한 노후를 위한 건강과 비타민'을 주제로 강연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홈페이지(www.kbstar.com) 이벤트 존과 각 지역 개인영업점 창구를 통해 세미나 참석 사전예약 신청을 받고 있다. /김민지기자 minji@



자살예방 'SOS생명의 전화기' 개통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12일 한강 양화대교에서 11번째 자살예방 긴급상담전화 'SOS생명의전화기' 개통식을 가졌다. 생보재단은 지난 2011년 7월 마포대교와 한남대교에 이 전화기를 설치한 후 현재 10개 다리에 총 41개의 SOS생명의전화기를 운영하고 있다. 임종석(왼쪽)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이시형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이 양화대교에 개통한 SOS생명의전화기를 시연하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제공

삼성·LG전자 CES 2015 혁신상 휩쓸어

갤럭시 노트엣지·올레드TV 등 수상



삼성전자 CES혁신상 제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혁신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36개, 10개 제품으로 '2015 CES 혁신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년 1월 CES에서 발표할 신제품 TV와 갤럭시 노트 엣지로 '최고혁신상'을 받았고, LG전자는 가변형 올레드 TV와 G3로 3년연속 혁신상의 영예를 얻었다.

5일(현지시간) 미국가전협회(CEA)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TV(11개), 모니터(3개), 스마트폰(3개), 웨어러블(2개), 태블릿(2개), 반도체(4개), 가전(3개), 프린터(2개) 등 36개 제품이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LG전자도 TV(4개), 모니터(1개), 스마트폰(1개), 생활가전(4개) 등 10개 제품이 혁신상 명단에 올랐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TV 부문에서 4년 연속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최근 출시된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4와 갤럭시 S5를 비롯해 갤럭시 탭S 10.5, 갤럭시 탭S 8.4 등 태블릿 제품도 이름을 올렸다. 최고 사양의 미러리스 카메라인 NX1, 프리미엄 헤드셋 레벨 오버를 비롯해 웨어러블 기기인 기어 S, 기어 VR도 혁신상에 포함됐다.

가전 부문에선 LED를 이용한 가상불꽃 기술이 적용된 셰프컬렉션 인덕션 레인지와 세계 최초로 양문형 구조를 적용한 플렉스 듀오 오븐이 선정됐다. 반도체 부문에서도 4개상을 수상했다.

LG전자는 가변형 올레드 TV와 G3를 비롯해 10개 부문을 휩쓸었다. 특히 LG 올레드 TV와 G시리즈는 2012년 첫 공개 이후 3년 연속으로 혁신상을 수상했다.

가변형 올레드 TV는 리모컨으로 화면곡률을 조정,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로 휘어질 수 있도록 설계한 제품이다. 곡률은 평면부터 화면 크기와 시청 거리 등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곡률로 조정가능하다. G3는 최고의 기술들을 담았지만, 최대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다.

생활가전 부문에서는 에코 하이브리드(EcoHybrid) 건조기, 4도어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등 4개 제품이 'CES 혁신상'을 받았다. 에코하이브리드 건조기는 그동안 건조기에서 버려지던 배기구의 열에너지를 히트펌프(Heat-Pump)로 재활용해 전력소비량을 최대 50%까지 줄인 제품이다.

한편 CES 2015는 내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린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 대형 부스를 마련, 혁신상 수상 제품들을 비롯해 세계 소비가전 업계를 선도하는 기기와 기술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2020년까지 22개 차종 확대

현대·기아차, 친환경차 라인업 구축

현대·기아차가 미래 자동차 시장인 친환경차 분야에서 강자로 부상하겠다는 중장기 전략을 추진한다.

현대·기아차는 2020년까지 현재 7개 차종인 친환경차를 22개 차종 이상으로 확대하고 소형에서부터 SUV에 이르는 친환경차 풀 라인업을 구축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220만대에서 2020년 640만대 규모로 증가하는 전 세계 친환경차 시장에서 글로벌 2위권으로 진입하겠다는 내부적 목표도 수립했다.

현대·기아차는 이를 위해 최고수준 연비와 핵심부품 원천기술 확보, 성능·가격 경쟁력을 토대로 현대·기아차만의 독자적 친환경차 시스템을 확립할 방침이다.

국내에는 친환경차 전 분야에서 다양한 차종을 선보여 한국이 환경차 강국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현대·기아차만의 독자적 친환경차 시스템을 구축, 글로벌 메이커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친환경차 경쟁에서 시장 대응 차원을 넘어 미래시장 신 수요를 적극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기아차는▲하이브리드/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종 확대 ▲전기차 주행거리 확대 ▲수소연료전지차 기술 리더십 공고화 등에 주력하고, 전 세계 주요 지역별 특성에 맞춰 판매전략도 세분화한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하이브리드 4개 차종, 전기차 2개 차종, 수소연료전지차 1개 차종을 판매하고 있다. 2020년에는 하이브리드 12개 차종,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6개 차종, 전기차 2개 차종, 수소연료전지차 2개 차종을 운영한다.

/임의택기자 ferrari5@


현대차 콘셉트카 '커브'


기조연설하는 비트코인재단 이사장 미국 비트코인재단 피터 베센스 이사장이 12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2014 이노비즈 글로벌포럼에 참석해 비트코인 관련 산업의 미래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넌 아직도 힘들게 줄 서니?"

SK플래닛 '시럽 오더'

SK플래닛의 모바일 선 주문 서비스 '시럽 오더'가 직장인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럽 오더는 앱을 실행하면 사용자 주변의 제휴매장을 보여주고 고객이 원하는 매장의 상세 메뉴를 제공한다. 고객이 직접 매장에 가지 않고도 맞춤형 주문과 모바일 결제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명동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럽 오더를 사용해 봤다. 점심식사를 마치기 전 시럽 오더를 실행, 자리에 함께한 이들의 음료까지 주문했다.

점심식사를 함께한 사람들 모두 취향이 다른 만큼 같은 커피라도 요구사항이 달랐다. 샷을 1잔 추가해달라, 시럽을 빼달라, 사이즈는 레귤러로 해달라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시럽 오더 앱 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시럽 오더'를 이용하면 음료를 주문한 후 '픽업알림' 메시지를 확인한 뒤 주문한 음료를 간편히 받을 수 있다. /SK플래닛 제공

모든 주문을 완료하니 앱 내에서 결제도 가능했다. 이용자는 신용카드, 휴대전화 결제, SK플래닛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핀' 중 선택해 결제할 수 있다.

결제를 완료하니 앱 내에 '주문요청' 부분에 불이 들어왔다. 이것은 결제 승인이 이뤄져 해당 매장에 주문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어 음료제작과 픽업알림을 통해 주문자는 실시간으로 주문한 음료의 제작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SK플래닛 관계자는 "일부 면대면 대화를 어려워 하는 소극적인 사람들이 매장에 방문해 자신의 취향대로 커피를 주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럽 오더의 경우 앱 내에서 다양한 요구사항을 설정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도 자신있게 주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럽 오더 서비스는 직장인과 학생들 사이에 각광을 받고 있다. 붐비는 점심시간 간편하게 주문과 결제, 음료의 픽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SK플래닛의 시럽 오더는 현재 서울과 판교지역 일부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SK플래닛은 연말까지 유명 커피 브랜드와 지속적인 제휴를 맺고 전국 매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

현대重 2조원대 공사 수주

UAE 석유회사와 해저케이블 설치 계약…위기 돌파구 기대

올해 2·3분기 4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2조원이 넘는 대규모 해양공사를 따냈다.

현대중공업은 아랍에미리트(UAE) 국영석유회사인 아드녹의 자회사 '아드마옵코'와 2조1000억원 규모의 해양공사를 계약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UAE 아부다비에서 북서쪽으로 131㎞ 떨어진 나스르 해상 유전지대에 각종 원유생산시설을 제작·설치하는 것. 현재 하루 2만2000 배럴의 원유생산량을 6만5000 배럴로 3배 가량 증산하는 공사다.

2개 패키지 가운데 1개 패키지를 수주한 현대중공업은 원유분리설비, 가스처리설비, 기초구조물, 거주구, 200㎞ 구간의 전력공급용 해저케이블 설치 등을 수행하게 된다.

다른 패키지 1개는 기존 운영 중인 2개의 원유시추플랫폼 외에 7개의 플랫폼을 추가로 제작·설치하는 공사로 아랍에미리트 현지의 NPCC사가 수행한다.

현대중공업은 이달 설계에 착수해 구매, 제작, 운송, 설치, 시운전까지 전 공정을 일괄도급계약방식(EPC)으로 수행, 2019년 하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1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김종도 해양사업본부장과 아드마옵코의 알 자완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정식 해상플랫폼 4기와 200㎞ 구간의 해저케이블 설치에 대한 계약식을 가졌다. 지난 7월 발주통보서(LOA)를 접수한지 약 4개월 만이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현대중공업 김종도 해양사업본부장(오른쪽 둘째)과 아드마옵코사의 알 자완 사장이 11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서 해양공사 계약식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제공



끝없는 구직 행렬 12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영남권 통합 채용박람회인 '2014 부산 잡(JOB) 페스티벌'이 열렸다. 구직자들이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줄을 서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車·모바일·조명 부품 앞세워 유럽공략

LG이노텍 전시회 참가

LG이노텍은 11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부품 전시회 '일렉트로니카 2014'에 참가해 최첨단 소재·부품을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일렉트로니카는 전 세계 50개국에서 소재·부품 분야 2700여개 기업이 참가하고 관람객이 7만여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 부품전문 전시회로 2년에 한번씩 열린다.

LG이노텍은 자동차, 가전, 조명분야 선진 시장인 유럽 현지에서 안전성과 효율성, 편의성을 높인 첨단 소재·부품을 대거 소개하며 제품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과 시장 확대 의지를 나타냈다. 전시 제품이 차량 전장부품부터 스마트폰 등 IT기기 부품, LED 조명 부품까지 50여종에 이른다.



특히 이 회사는 이번 전시회에 사업분야별 주요 업체를 초청해 비즈니스 미팅을 갖고 차별화된 제품을 제안함으로써 공급 품목 확대와 신규 거래선 확보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전시제품들이 광학, 정밀구동, 무선통신 등 시장선도 기술을 융·복합한 차세대 소재·부품인 만큼 글로벌 고객들의 이목을 집중 시킬 것이라는 기대다.

LG이노텍 전시관은 '오토모티브', '스마트', '에너지' 등 3개 체험존으로 구성됐다. 소재와 부품을 직접 구동해보며 성능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오토모티브존에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용 부품과 커넥티비티(Connectivity) 부품, 차량용 LED, 터치패널, 모터와 센서 등을 전시했다. 스마트존에서는 고성능 카메라모듈, 전자가격표시기(ESL), 플렉시블 터치스크린패널(TSP) 등을 선보였다. 에너지존은 고효율·고출력 LED 패키지와 교류(AC) 구동방식 LED 모듈, 자외선(UV) LED 등으로 채워졌다.

LG이노텍 관계자는 "고객의 안전하고 편리하며 즐거운 삶을 위해 최첨단 혁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핵심 기술 융·복합으로 안전성과 효율성, 편의성을 높인 소재·부품을 선보임으로써 유럽시장 공략 속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

달리는 차 밖으로 동영상 찍어보면 안다



아이폰6플러스 써보니

손떨림 보정 기능 놀랍고 그립감도 부드러워

'소형차를 끌고 다니다 최고급 대형 승용차를 운전하는 기분이 이럴까.'

애플의 '아이폰5S'를 사용하다 만난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6 플러스'의 첫 느낌은 세상이 훨씬 커진 듯한 착각마저 느끼게 했다. 4인치에서 단지 1.5인치 늘어났을 뿐인데 5.5인치 화면에 담는 정보의 양은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예를 들어 아이폰5S에서 보이지 않았던 네이버 모바일 초기화면 아래쪽에 위치한 날씨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다. 가로보기 모드를 활용하면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연락처 메뉴까지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다. 한 치수 커진 글씨는 흔들리는 버스에서도 읽는 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눈이 편안했다. 게다가 커진 키보드 덕분에 두꺼운 손가락으로도 오타가 거의 나지 않는 점이 신기했을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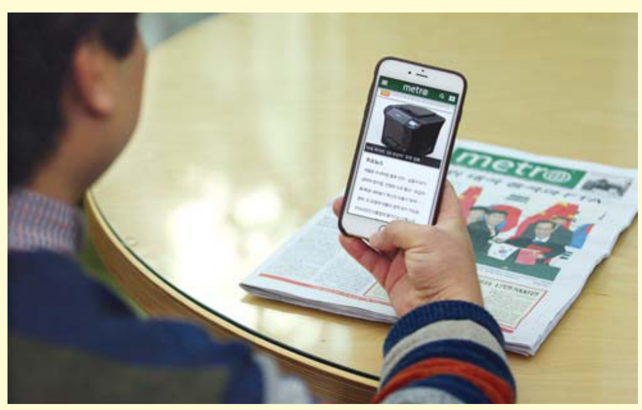
◆대충 찍어도 선명한 사진 OK

'스마트폰은 한손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의 철학을 지키기 위한 장치도 매력적이다. 홈 버튼을 두 번 두드리면 화면이 아래로 '쑥' 내려와 한 손만으로도 원하는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얇아진 두께도 '한손 철학'을 지키는데 한몫하고 있다. 아이폰5S(7.6mm)보다 0.5mm 줄인데다 옆면을 곡선으로 매끈하게 처리해 한손에 잡히는 '그립감'은 부담스럽지 않다.

무엇보다 아이폰6플러스의 매력인 점은 카메라 기능이다.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을 잡아주는 '주황색 박스'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픽셀의 센서가 피사체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눈 깜짝할 사이에 초점을 잡아 내기 때문이다. 특히 광학적손떨림보정(OIS)을 탑재해 파노라마는 물론 어둠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대충 눌러도 전문가급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자이로센서와 가속계를 이용한 '시네마틱 동영상 보정 기능'은 놀라울 정도다. 일반인들도 특수카메라인 스태디캠을 사용한 것과 같은 흔들림 없는 선명한 프로급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자동차나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옆에서 경주하는 동료의 얼굴 표정까지 똑똑히 잡아내는 극적인 영상도 아이폰6플러스에서만 맛볼 수 있는 재미다. /이국명기자 kmlee@



세금 낮은 불가리아에 투자하세요

14일 롯데호텔서 설명회

불가리아투자청이 14일 오후2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투자설명회를 연다.

불가리아는 EU국가 중 법인세·개인소득세가 가장 낮은 국가로 각각 10%에 불과하다. 고실업률 지역 투자자들에게는 법인세를 100% 재투자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다.

불가리아는 나토와 EU회원국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투자처이다. 또 유럽에서 재정적자가 가장 낮고 유로에 환율이 고정돼 있어 외환 리스크도 적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금·사무실 임대비, 시설비도 매력적이다.

불가리아투자청 관계자는 "최근 투자 관련 법률이 개정돼 투자자 등급 자격증 발급 신청절차에 대한 행정절차가 매우 간소화된 것도 투자를 지원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국명기자

영구 조망권 보장 아파트가 분양 대세로

신축 건물에 가로막히는 분쟁 급증
평생 시야 가리지 않는 전망 선호↑

#2012년 서울 용산구 청암동 X아파트 주민 35명이 건너편 상가로 인해 한강 조망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건축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조망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만큼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힐스테이트 광교 부지 45층 높이에서 바라본 호수공원 전경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상복합과 고층아파트 확산에 따른 일조권·조망권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일조·조망 관련 분쟁건수만 252건에 이를 정도다.

현행법상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환경분쟁(일조방해, 조망저해 등)은 건축분쟁전문의원회에서 처리하게 돼 있다. 그러나 기준이 모호하고 전문성이 부족해 분쟁 조정 건수가 1년 평균 3~4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부분 분쟁 갈등은 소송으로 이어져 주민들이 정신적·물질적 부담을 지곤 한다. 소송을 하더라도 손해를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 조망권 인정 기준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법원의 판례 때문이다.

때문에 최근에는 '당장'이 아닌 '평생' 조망이 가능한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덩달아 신규 분양시장에서도 현재 '확보'보다 향후 '보장'에 초점을 맞춰 홍보하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산·강·바다 등의 조망권이 확보된다고 해서 현재 살고 있는 집 앞으로 갑자기 건물이 들어서 시야가 가리게 된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조망권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확실히 요즘에는 영구 조망권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달 2회차 청약을 진행한 서울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는 112A타입에 3.3㎡당 5000만원이라는 역대 최고가 분양가를 책정했음에도 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면 한강 조망이 평생 가능하다는 희소가치가 빛을 발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 경기 광명역세권택지지구에서 공급된 '광명역 파크자이'와 '광명역 푸르지오'는 조망권에 의해 청약 결과가 갈리기도 했다. 축구장 20배 크기인 새물공원이 바로 앞인 '광명역 파크자이'가 '광명역 푸르지오'보다 3배나 높은 평균 1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 광교신도시 호수공원 D블록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광교'는 원천호수공원과 신대호수공원을 양방향으로 조망할 수 있다는 입지가 부각되며 소비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광교신도시는 호수공원 조망 여부에 따라 집값 차이가 수천만원에 이른다"며 "영구적으로 조망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에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도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보통 신도시나 택지지구는 토지이용이 계획돼 있어 아파트 앞으로 건물이 신축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조망 대상이 단지와 바로 맞닿아 있는 때도 시야가 가릴 일이 거의 없다"며 "조망 아파트를 찾는다면 주변 여건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걱정되는 중동시장 건설 수주

유럽업체 공격적 활동 철저 대비 필요

국내 건설사들이 중동에서 유럽 업체들의 공격적인 수주 활동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유가 하락의 여파로 중동지역 공사 발주량이 줄어들 전망이어서 국내 건설사들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대차그룹 산하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는 12일 '건설·철강 동향' 보고서를 통해 유럽 건설사들이 최근 중동 건설시장에서 공격적인 수주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22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발주한 쿠라이스 유전 확장 사업을 이탈리아의 사이펨이 최저가로 수주했다.

30억 달러 규모로 발주된 이 사업 입찰에는 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사도 참여했지만 16억 달러를 써낸 사이펨에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펨은 올해 초에도 30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 지잔 가스화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해 국내 업체들을 제치고 최저가로 공사를 수주한 바 있다.

미국의 건설·엔지니어링 전문지 ENR 조사에 따르면 2012년 매출액 기준 중동 지역 5위였던 그리스 건설업체 CCC는 지난해 3위로 순위가 두 계단 상승했다. 사이펨도 2012년 6위에서 지난해 5위로 순위가 한 계단 올라갔다.

반면 같은 기간 매출액 3위였던 대림산업은 6위로, 8위였던 GS건설은 10위로 하락하며 유럽 건설사들에 자리를 내줬다.

업계는 이 같은 변화가 그동안 중동 시장에서 저가 수주 경쟁을 자제하던 유럽 업체들이 적극적인 수주 전략으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국내 건설사들은 오히려 중동에서 '제값 받기'에 주력하고 있어 유럽 업체들의 공격적인 중동 시장 공략과 대비된다.

한때 수주 텃밭으로 여겼던 중동에서 국내 건설사들은 저가 수주의 여파로 '승자의 저주'를 경험하며 실적 악화에 시달렸다.

이에 따라 국내 건설사들은 무조건 낮은 가격을 써내 일단 수주하고 보자는 식의 입찰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도 국제유가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중동의 발주량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두탁기자 kimdt@



대우건설, 민자발전시장 첫발 12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일원에 940MW급의 LNG복합화력발전소 1기를 건설하는 포천복합화력 민자발전사업 착공식에서 서장원 포천시장(왼쪽 7번째), 하익환 대우건설 발전사업본부장(왼쪽서 8번째)을 비롯한 내외빈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대우건설 제공

호반건설, 금호산업 지분 5.16% 매수

171만4885주 취득… "경영권엔 관심 없어"

호반건설이 금호산업의 주식을 매입, 5대 주주로 올라섰다.

금호산업은 호반건설이 장내매수를 통해 자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71만4884주(5.16%)를 취득했다고 12일 공시했다. 매입가격은 주당 1만1926억원으로, 전체 매수금액은 204억원이다.

앞서 11일 산업은행 등 금호산업 채권단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금호산업 지분(57.6%)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중 매각 주간사를 선정해 내년 1월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호반건설의 금호산업 지분 매입이 경영권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호반건설 관계자는 "금호산업 채권단 발표와 공교롭게 일정이 겹쳤을 뿐 여유자금으로 투자목적 차원에서 매입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채권단 지분에 대해서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에게 매수청구권이 있다. 박 회장이 현재 금호산업 지분 10.60%를 보유한 만큼, 57.6% 중 40%의 지분만 되사도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호반건설은 '호반베르디움' 브랜드로 유명한 시공순위 15위의 주택전문건설사다. 부채비율이 16%에 불과하고 잉여이익금만 5972억원에 달해 재무구조가 가장 탄탄한 건설사로 평가된다. /박선옥기자

식품·외식업계, '지역 특산물' 활용 마케팅

원산지 믿음 주고 명인 손길 담아 호평

식품업계가 최근 지역의 특산물을 제품에 적용시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재료의 원산지까지 따지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고, 농산물의 경우 재배하는 지역에 따라 맛이나 영양성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대상 청정원은 옛날 임금님께 진상하던 고급 명품쌀인 이천쌀로 만든 '청정원 우리쌀 죽'과 '청정원 우리쌀 수프'를 최근 선보였다. '우리쌀 잣죽'은 이천쌀과 함께 가평의 대표 특산물로 꼽히는 잣을 사용했다. '우리쌀 수프'는 기존 20~26% 이상 들어간 수입 밀을 100% 이천 명품 쌀로 대체해 만들었다.

복음자리 '명인 유기농 유자차'는 명인의 이름을 내건 제품이다. 국내 유일의 유자 유기농 명인 1호 박태화 명인이 미네랄 농법과 순환 농법으로 전라남도에서 재배한 유자로 만들었다.

아워홈은 제천지역 특산물인 감초로 만든 '아워홈 감초김치' '오곡감초삼계탕' 등을 잇따라 내놨다. 제천시 향토사업단과 손을 잡고 지역특산물인 감초를 상품화한 사례다.

외식업계도 지역 특산물을 내세운 메뉴개발이 한창이다.





(왼쪽부터) 청정원 '잣죽', 죽복음자리 '명인 유기농 유자차'

드롭탑은 제주도 다원에서 생산된 '제주 한라 녹차' 티백 세트와 음료를 판매하고 있다. 곡우 전후의 어린 녹차 잎만 골라 채엽한 우전 차다. 찻잎을 증기로 찐 다음 덖는 전통방법으로 생산했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비비고등은 충남 서천 전어와 경북 의성 마늘, 안동 사과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레시피를 대거 선보였다. 비비고의 '재첩 비빔밥과 메밀 전병 반상'은 쫄깃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재첩 장무침을 신선한 채소와 함께 비벼 먹는 경상남도 하동식 재첩 비빔밥, 데친 주꾸미와 고소한 메밀 전병도 함께 차려내 든든한 한 끼를 선사한다.

이마트는 국내 최초로 제주도에서 수확한 참깨 100%만을 이용해 만든 자체브랜드(PL) 참기름인 '이마트 제주도 참기름'을 출시해 전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국산 참기름 원료보다 약 10% 원가가 높은 제주 참깨를 사용했지만 기존 국산 참기름에 비해 40% 가량 가격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휴럼은 제주산 유기농 키위와 망고를 함께 담은 '오 키위와 망고'를 비롯해 100% 제주산 유기농 블루베리를 착즙한 '오 블루베리'등 프리미엄 과실주스를 판매하고 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뉴스&뉴스



가리비 구워 먹어볼까? 이마트가 13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점포에서 남해 청정지역인 고성·통영에서 양식한 활가리비 총 20t을 시중가 대비 20% 가량 저렴한 900g당 9990원에 판매한다. 양식 가리비는 자연산에 비해 크기가 커서 식감이 좋고 단맛 역시 뛰어나지만 산지 가격은 kg당 5000원에 불과해 1kg에 1만8000원을 호가하는 자연산보다 70% 가량 저렴하다고 마트 측은 설명했다. /이마트 제공

카라멜콘 메이플, 2년만에 500억 매출



● 크라운제과는 12일 자사의 대표 장수 제품인 카라멜콘 시리즈(카라멜콘 땅콩·빅카라멜콘 초코·카라멜콘 메이플) 중 요즘 가장 '핫' 한 반응을 얻고 있는 카라멜콘 메이플이 출시 2년 만에 누적매출 5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 고객에게 매장 주방 공개

● 맥도날드(대표 조 엘린저)는 자사가 사용하는 우수한 품질의 식재료와 위생적인 주방 시스템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전국 270여개 맥도날드 매장에서 5000여명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내셔널 오픈 데이' 행사를 연다. 참가 희망자는 16일까지 매장에 구비된 참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정재원 정식품 명예회장 콩세계과학관 지원

● 정식품은 12일 자사 창립자인 정재원(사진) 명예회장이 최근 경북 영주시가 2015년 3월 개관 예정으로 추진중인 콩세계과학관의 콩생육장(영주시 부석면) 건립에 2억원을 후원해 콩과 관련된 교육·체험·연구와 국제적 정보 교류의 장 마련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SPC, 김장 500포기 담가 불우 가정에 전달

● SPC그룹은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양재노인종합복지관에서 30여 명의 임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김장 나누기' 봉사활동을 통해 김장김치 500포기를 담가 방한용품과 함께 양재동 내 120가정에 전달했다.



수험표 지참하면 쟁반냉면·음료수 '공짜'

강강술래 홍대점, 수능 끝 힐링외식 이벤트
오후 8시30분 이후 구이메뉴 2+1 덤 증정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수능시험 준비로 고생한 수험생은 물론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벌인다.

수능일인 13일부터 16일까지 홍대점(02-3143-6635)은 올 수능 수험표를 지참한 고객이 구이메뉴를 주문하면 쟁반냉면과 음료수를 서비스로 제공한다. 오후 8시30분 이후 한돈·돼지·술래 양념구이 또는 생고기한판 메뉴를 2인분 주문하면 3인분을 주는 '2+1 행사'를 벌인다.

상계·홍대·시흥·늘봄농원점은 13~14일까지 소고기 구이류를 주문하면 한우불고기를, 돼지고기 구이류를 주문하면 돼지양념구이 포장상품을 주문한 만큼 무료 증정한다. 신림점은 소고기 구이메뉴 주문 때 한우불고기를 준다.(해피아워·정식류 제외)



강강술래 매장 모습. /강강술래 제공

같은 기간 전 매장에서는 육류에 잘 어울리는 산타리타 히어로 카버네쇼비뇽 와인 1병을 주문하면 결제 때 산타리타 히어로 멜롯 와인 1병을 선물로 증정한다.

이와 함께 가정간편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선물세트(800㎖·5팩·15인분)도 14일까지 30% 할인된 3만8800원에 판매하며, 구매 시 소용량선물세트(350㎖·5팩·10인분·2만2500원)를 덤으로 준다.

강강술래 곰탕은 방부제·색소·조미료 등을 넣지 않고 100% 한우로만 우려내 맛이 진하다. 기력보충과 원기회복은 물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 또 냄비에 붓고 끓이거나 봉지째 데워 먹을 수 있어 조리도 간편하다.

/정영일기자

"11월은 쇼핑하기 좋은 달?"

온라인유통, 할인 행사 잇따라… 쿠폰·기획전 풍성

온라인 유통업계가 11월 대대적인 할인에 나섰다. 11월 초 수능과 빼빼로 데이에 이어 28일 블랙프라이 데이에 대비해 이벤트를 기획 중이다.

옥션은 30일까지 식품과 생필품을 연중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레드 프라이 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올해 인기를 얻은 식품·생필품 키워드 100종을 뽑고 하루에 9개 키워드 100개 대표 상품을 최대 65% 할인한다. 특히 생필품 구매가 몰리는 매주 금요일에는 가장 할인율이 높은 상품들만 모아 선보인다. 이 기간 무료 배송 쿠폰을 매일 2000장씩 총 3만 장을 발급하고, 구매 상품 포인트를 두 배로 적립해준다.

G마켓도 28일까지 '슈퍼블랙세일'(사진)을 연다. 16일까지 1탄을 통해 패션·뷰티·유아동 인기상품에 최대 55% 할인율을 제공한다.



2탄에서는 해외 직구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18일부터 해외 직구 상품 할인을 비롯해 카드사 쿠폰과 위즈위드 쿠폰, 4대 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G9에서는 23일까지 '패션페어'를 통해 샤넬백 경품 증정과 캐시백 50% 혜택이 있다.

11번가는 연중 최대 규모의 프로모션 '11월은 무조건 11번가'를 진행한다. '쇼킹딜 십일시' 전용 프로모션인 '쇼킹할인 럭키룰렛'을 상시 운영한다. 매일 오전 11시 특정 상품에 한해 최대 99%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김수정기자 ksj0215@

다운재킷 트렌드는 '반전'

휠라 '야누스' 일상복·스키복 활용… 실속·위트형 인기

무거운 사회 이슈와 경기 불황으로 다소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싶은 소비심리가 패션에도 영향을 끼쳤다. 최근 실속형 제품이나 다양한 기능을 지닌 위트형 패션 아이템이 인기를 끌고 있다. 올겨울 다운재킷 트렌드 역시 '반전'이 대세다.

스포츠 브랜드 휠라는 12일 반전 다운재킷의 키워드로 'DRAMA'를 제시했다.

'DRAMA'는 겸용 패션(Dual), 기분 전환(Refresh), 활동성 강화(Activity), 모바일 라이프(Mobile), 진보된 기술력(Advance)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



올해 출시된 다운재킷은 일상복은 물론 스키복·등산복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벼운 야외활동이 무리가 없도록 방수·투습·보온력을 극대화했다.

또 심플한 스타일이 유행했던 지난해와 달리 반짝이는 와펜이나 과장된 털 장식, 퀼팅 라인 등 재밌는 디테일로 기분 전환을 고려한 제품이 많다.

활동성도 빼놓을 수 없다. 안전이 화두가 되면서 스키·등산 등 액티브한 활동에 적합한 고 기능성 소재와 야간 활동에 유용한 3M 반사소재를 대거 사용했다. 모바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제품마다 휴대폰·MP3 등 IT기기 전용 포켓을 부착한 것도 특징이다.

더불어 낙하산·소방복 소재를 적용해 내구성을 강화하는 등 한층 진보된 기술력도 반전 트렌드의 하나라고 휠라 측은 설명했다.

휠라가 선보인 '야누스 다운재킷'은 반전 트렌드를 반영한 대표적인 제품이다.

캐주얼한 디자인에 스키복에 쓰이는 기능을 접목해 평상복으로는 물론 윈터 스포츠 활동 시에도 무난하게 입을 수 있다. 또 특허 받은 구스다운인 '히트다운'과 체열 반사 시스템을 사용해 보온력을 높이고, 투습과 방수 기능 소재·탈착식 스노우스커트·소매 이중 밴드·3M 반사소재를 써 스키복으로 겸용이 가능하다고 휠라 관계자는 덧붙였다.

가슴과 소매에 수납 공간을 다양화하고, 가슴 내부에 메시 소재를 적용해 지퍼를 열 때마다 수증기가 배출되도록 설계했다. 특히 남성용의 경우 어깨 부분에 프로텍트 필름을 달아 내구성을 높였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뷰티업계 '30일 환불' 마케팅

나노키 "맞는 화장품 찾을 때까지 무료 반품"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라도 '내 피부'에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하지만 큰 돈 들여 산 화장품을 그냥 버리기란 쉽지 않다.

최근 뷰티업계가 이같은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무료 교환·환불 마케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남성 홈케어 브랜드 나노키(사진)는 화장품 구매 후 30일 이내 반품 교환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나노키는 파라벤·인공색소·광물성 오일 등을 첨가하지 않고 천연성분을 사용한 화장품을 피부 타입별로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이 회사의 김수환 대표는 "100% 재활용 가능한 용기 등으로 가격 거품을 줄여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고 있다"며 "고객이 자신의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찾을 때까지 몇 번이고 환불, 교환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뷰티 큐레이션이커머스 브랜드 미미박스도 이달부터 '30일 무료 환불 보장 서비스'를 도입했다.

구매일로부터 30일 동안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물론 쓴 제품까지 무료로 환불해 준다. 미미박스 측은 온라인으로 화장품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들의 결정을 돕고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환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아프리카 어린이 위한 '구호물품' 체험 12일 서울 용산역 야외광장에서 현대아이파크몰과 유니세프 공동 주최로 열린 아프리카 어린이를 위한 '구호물품' 체험 캠페인에서 어린이들이 현지에 유니세프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어린이 물통이'를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준뷰티랩, 연말 전시회 새로운 시도 '주목'

'사계, 일상을 만나다' 주제 헤어 작품 선봬

박준뷰티랩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한 콜라보레이션 연말 전시회를 열어 미용 업계는 물론 문화계로부터 새로운 시도로 관심을 받았다. 이 기간 '사계, 일상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자연에서 받은 영감을 헤어와 그림에 접목시켜 만들어진 헤어 작품과 그림 작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였다.



박람회 첫날부터 미용 관계자는 물론 미용·미술관련 학생들 그리고 DDP를 찾은 일반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10일 진행된 박준뷰티랩 DAY에서는 헤어 작품을 만든 디자이너들과 박준뷰티랩 전 지점 원장들이 모인 가운데 시상식을 열었다. 정식 심사위원과 전 지점 원장, 전시장을 찾은 일반 관람객, 기자 등이 직접 베스트3 작품을 선정했다.

대상은 '타임리스' 작품을 선보인 롯데송파점의 임현정 디자이너가 수상했다.

박준뷰티랩 관계자는 "연말 전시회는 새로운 도전이자 신선한 발상으로 기술을 넘어 새로운 예술을 탄생시키며 꿈나무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었다"며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 실험을 하는 박준뷰티랩의 연구소와 잘 맞았던 전시회의 컨셉이 앞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 지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뉴스&뉴스

자라 홈, 상륙… 27일 코엑스몰 매장 오픈

● 홈 데코 전문 브랜드 자라홈이 국내 첫 번째 매장을 27일 서울 코엑스몰에 오픈한다고 12일 밝혔다.



규모는 350㎡로 자라홈 키즈를 포함한 홈 데코와 관련된 다양한 제품이 입고될 예정이다. 신제품은 1주 2회씩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물 세안 필요없다…아더마, 클렌징 밀크 출시



●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 아더마가 클렌징 밀크 '센시플루이드 레 데마끼앙'(사진)을 출시했다.

산뜻한 밀크 타입의 텍스처로 자극 없이 메이크업과 노폐물을 제거하며, 물 세안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특징이다. 뛰어난 세정력으로 베이스 메이크업은 물론 아이 메이크업까지 한번에 지울 수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엔프라니 '컨실러·헤어라인 마스터' 선보여

● 화장품 브랜드 엔프라니는 '더블커버 컨실러 마스터'와 '엣지베이터 브로우 앤 헤어라인 마스터'를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더블커버 컨실러 마스터는 스틱과 리퀴드 2가지 제형의 컨실러가 하나의 용기에 장착돼 다양한 피부결점을 한 번에 커버한다. 엣지베이터 브로우 앤 헤어라인 마스터는 자연스러운 눈썹과 촘촘하고 둥그스름한 헤어라인을 동시에 연출한다.

블랙야크, 다큐 영화 '학교 가는 길' 시사회

●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는 자사가 제작지원 한 히말라야 배경의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가는 길'의 시사회 초청 이벤트를 진행한다.

15일까지 블랙야크 페이스북에 영화 기대평을 댓글로 남긴 고객 중 30명(1인 2매)을 추첨해 초청할 예정이다. 시사회는 18일 오후 8시 롯데시네마건대입구에서 열린다.



뉴스&뉴스

한국광고홍보학회, '마케팅PR' 특별 세미나

●한국광고홍보학회(회장 이수범 교수)는 오는 21일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오리토리움에서 종합홍보회사 이목커뮤니케이션즈와 공동으로 '2014 마케팅PR(MPR)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재정의'라는 주제로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아 현재까지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짚어보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됐다.

세미나에선 TBWA 박준형 전무가 'IMC를 넘어 IBC로'를 이목커뮤니케이션즈 허종욱 대표가 'MPR 효과 사전 측정을 위한 선행기획요인'을 제일기획 김홍탁 마스터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의 진화'를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서강대 경영학과 전성률 교수, 중앙대 광고홍보학과 성민정 교수, 경성대 광고홍보학과 박기철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게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희망자는 이목커뮤니케이션즈(02-547-2771)로 신청하면 된다.

연세바른병원, 수험생 MRI 할인 이벤트



●연세바른병원이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자기공명영상(MRI) 검진 30%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는 수험생들의 대표 질환인 허리 디스크와 척추측만증을 부담 없는 가격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험표를 지참해 병원을 방문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GSK, 여성 노숙인과 함께 '본심 운동회'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하 GSK)이 최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여성 노숙인들과 함께 여성 뼈 건강 증진을 위한 '본심(bone-心)운동회'를 개최했다. 운동회는 지난 9월 발족된 GSK의 여성 뼈 건강을 위한 '본심 캠페인'의 첫 활동으로 운동회에는 GSK 임직원과 홈리스 여성 쉼터인 열린여성센터 입소자 50여 명이 참가했다.

반려동물 시장 '1조8천억 대'

2020년 6조원 대 예상



/퓨리나 제공

이젠 고양이와 강아지도 어엿한 가족의 일환으로 대접받고 있는 시대가 됐다. 최근 1인 가구와 장년층을 중심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그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관련 시장 또한 동반 성장하고 있다.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조원 대 수준이던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올해 1조8000억원까지 늘어나고 2020년에는 6조원 대로 커질 전망이라고 한다.

특히 반려동물에게 없어서는 안될 식품 시장 규모도 2012년 기준 6000억원. 이 중 네슬레 퓨리나·한국 마즈 등 사료 전문 브랜드가 시장의 70% 이상을 선점하고 있다. 반려동물 시장의 급성장에 의해 대형 마트는 물론 도그 TV 등 과도 공동프로모션 진행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사료시장이 더욱 세분화, 고급화되면서 전문 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잇따라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애완동물용 사료 브랜드 '오프레시(OFRESH)'와 '오이네처', 풀무원은 유기농 애견사료 '아미오'를 론칭해 시장에 진출했다. 사조산업은 지난 6월 고양이용 사료인 '사조 로하이 캣푸드' 6종을 출시하며 사료 시장에 뛰어들었다.

동아원그룹은 세계 최고의 슈퍼 프리미엄 팻푸드 브랜드인 ANF의 국제 판권 인수에 참여해 브랜드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지난 95년 국내 최초로 팻푸드 진공포장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네슬레 퓨리나 관계자는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단순히 키우는 대상으로 생각한다기보다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 또는 자식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리조트업계 등 수능 후 이벤트 풍성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드디어 끝난다. 이에 리조트와 테마파크에서 수험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먼저 대명리조트 '비발디파크'는 다음 달 18일까지 '수험생 수능탈출 특가 패키지'를 준비했다. 패키지는 편안한 힐링타임과 신나는 물놀이가 가능하도록 비발디파크 객실 1박과 베이커리 세트, 오션월드 입장권 2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16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쏘라노 객실과 조식 뷔페 2인, 영화예매권 등이 포함된 '토닥토닥 패키지'를 마련했다. 또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아쿠아플라넷 여수·제주·일산에서는 30일까지 수험생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는 16일까지 수험표를 지참해 스포츠&레저 테마파크 '웅진플레이도시'를 방문하면 워터파크&스파(종일권) 또는 스키&보드(1타임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수험생들에게는 스키·보드 의류와 장비 대여가 50% 할인되며 수험생을 위한 '만원의 행복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오감만족 테마파크 '박물관은 살아있다'는 인사동 본점과 쌈지점, 파주 헤이리점에서 수험생에게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재수를 한 수험생에게는 동반 1인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혜택도 준다. 고 3 예비 졸업생을 대상으로 졸업앨범을 제작해주는 이벤트도 열린다.

이와 함께 다양한 전시와 공연으로 유명한 복합 문화공간 르뮤제는 20일까지 수능을 치른 수험생에게 전체 금액 중 20%를 할인한다. /황재용기자 hsoul38@



수족냉증 호소하면 레이노 증후군?

찬바람에 손가락 하얗게 변하면 의심해야



겨울이 다가오면서 손발이 차고 저린 수족냉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박기덕(사진)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교수로부터 수족냉증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인 레이노 증후군에 대해 들어봤다.

레이노 증후군은 추운 곳에 가거나 차가운 물에 손발 등을 담글 때, 혹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손발 등의 하지 부분 혈관이 수축돼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이 질환은 20~40대 여성에게서 가장 빈번하게 발병하며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졌다.

또 차가운 환경이나 정서적인 자극이 지속되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이 하얗게 변하며 감각이 무뎌진다. 증상이 심해지면 혈액순환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수지 괴사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축된 혈관을 이완시키는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 증상이 심한 경우는 혈관 수축을 일으키는 교감신경을 절제하는 신경차단치료를 통해 발작 횟수와 기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 심리적인 긴장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발작을 방지하기 위해 명상 등을 통한 심리적 요법이 병행되기도 한다. /황재용기자

BIC, 어린이 보호기능 라이터 세미나

"제조사, 소비자 보호 의무 있다"

어린이 보호 기능 라이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BIC 프로덕트 코리아는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2014 빅 라이터 세미나'를 열고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어린이 보호 기능 라이터(CR 라이터)에 대해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51개월 이하 어린이의 최소 85%가 라이터를 켤 수 없도록 특수 설계된 어린이 보호 기능 라이터만 유통되도록 법으로 제정됐다. 이미 일본에서는 2010년부터 어린이 안전 라이터 규정이 법규화됐으며, 북미·유럽·오세아니아 등도 이를 의무 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다.

가스라이터와 공산품안전 관리제도에 대한 내용도 발표됐다. 김해규 한국 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팀장은 "정부가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사전 관리를 하고 있다"며 "소비자 단체 등이 나서서 제품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둬서 적발되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것이 국가의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BIC라이터는 50단계의 품질 체크와 높은 점화횟수 등 생산할 때 엄격한 품질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김수정기자 ksj0215@



데뷔 14년차 배우의 쉼 없는 행보

필모그래피에서 처음인 부자관계 이야기
아버지 향한 아들의 보편적인 감정에 집중
바쁘게 달린 2014년… "여유롭게 내년 준비"

'나의 독재자'의 박해일

2014년 박해일(37)은 바쁘게 달렸다. '경주'를 시작으로 '제보자'에 이어 '나의 독재자'까지 세 편의 출연 영화가 연달아 개봉했기 때문이다. 대학교수와 열혈 PD, 그리고 백수건달까지 일상적이면서도 나름의 색깔이 있는 캐릭터로 편안한 연기를 보여줬다. 올해로 데뷔 14년차지만 박해일의 행보는 여전히 쉼 없다.

지난달 30일 개봉한 영화 '나의 독재자'(감독 이해준)는 박해일의 필모그래피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이다. 몇 년 전 사석에서 만나 친분을 맺은 이해준 감독으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나리오로 쓰고 있는데 아들 역할에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말을 들은 것이 인연이 돼 영화 출연으로까지 이어졌다. 독특한 감성의 작품을 만들어온 이해준 감독과의 작업, 그리고 선배 배우인 설경구와의 호흡에 기대감이 컸다.

극중에서 박해일이 연기한 태식은 "돈이 곧 목숨"이라고 말하는, 자본주의가 급격히 확산되던 1994년을 대변하는 청년이다. 청산유수 같은 언변으로 다단계판매를 하며 외제차를 몰고 다니지만 알고 보면 빚에 허덕이는 백수 한량이다. 영화는 1970년대를 거치면서 자신을 독재자 김일성이라고 믿게 된 아버지 성근(설경구)을 20여년의 세월이 흐른 뒤 아들 태식이 다시 찾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박해일은 태식과 마찬가지로 20대로 1990년대를 보냈다. 그래서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청춘을 보냈던 과거로 "돌아가 보자"는 마음이 컸다. 다단계판매를 하며 첫 등장하는 태식의 모습은 코믹하다. 그러나 박해일은 태식의 밝은 모습 뒤에 감춰져 있을 결핍과 아픔을 이해하며 캐릭터에 몰입하고자 했다. 또한 영화 초반에 나오는 1970년대 에피소드 촬영 현장을 직접 찾아가 어린 태식을 연기하는 아역배우 박민수의 연기를 지켜보며 태식의 감정을 만들어가기도 했다.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마냥 평탄하지만은 않다. 박해일이 태식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를 향해 아들이 갖게 되는 보편적인 감정이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 보면 유달리 빠르고 넓은 보폭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고 질질 끌려간 기억이 누구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릴 적에는 아버지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 어느 순간 단호하고 독단적인 이미지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보편적인 감정을 찾아가려고 했어요."

전작 '제보자'에서 연기한 윤민철 PD가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라면 '나의 독재자'의 태식은 사건에서 한 걸음 빗겨나 관찰자의 입장에 서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연기에서 답답함을 느낄 법도 하지만 박해일은 "관객의 시선을 만들어주는 연기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화 후반부, 태식이 성근의 마지막 선물을 마주하는 면에서는 감정 표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스태프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깊은 여운을 남기는 태식의 오열은 묵묵히 쌓아온 감정이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와 만들어진 결과물이었다.



기대했던 설경구와의 연기는 "대단한 에너지를 가진 배우"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만족스러웠다. 70대의 노인 분장을 하고 연기해야 했던 설경구는 "박해일이 '은교'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배려를 해줬다"고 고마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박해일은 "당연히 배려해야 하는 것이었다"며 "오히려 태식의 감정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배우라면 한번쯤 성근 같은 캐릭터를 연기하고 싶은 욕심이 들 법도 하다. 그러나 박해일은 "아직까지는 백퍼센트 자신이 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작품을 차곡차곡하다 보면 언젠가는 말론 브란도가 '대부'를 남긴 것처럼 배우로서 하나의 족적이 되는 작품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물론 그런 작품은 "관객이 평가하는 것"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그저 박해일은 지금껏 그래왔듯 한결 같은 보폭으로 배우의 길을 걸어갈 생각뿐이다.

"'최종병기 활' 이후에 사극 시나리오를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사극은 규모가 크다보니 다시 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았죠. 그래서 '고령화가족'부터 '나의 독재자'까지 현실적인 느낌의 작품과 캐릭터에서 재미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또 무엇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여유를 갖고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김민주)·디자인/박은지

'슈퍼스타K6' 준결승 나란히 오른 '벗님들'

예선 무대서 '당신만이'로 화제 모은 곽진언·김필·임도혁 다섯 번 생방송 무대 통과… 사이좋게 톱3 진출해 기대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6'(이하 '슈스케6')가 지난 시즌 부진을 딛고 인기몰이 중이다.

'슈스케6'는 방송마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물론 온라인 음원 차트까지 점령하며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즌 슈퍼위크(예선) 콜라보 미션에서 만났던 참가자 곽진언·김필·임도혁은 당시 '벗님들'을 결성해 '당신만이' 무대로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뒤이은 예선도 무사히 통과한 곽진언·김필·임도혁은 나란히 생방송 무대에 진출해 좋은 동료이자 라이벌로 경쟁을 펼쳤다. 그 결과 세 명은 다섯 번의 생방송 무대를 거쳐 함께 톱3에 올랐다.

'벗님들'의 남다른 인연에 대해 김필은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톱3 공동인터뷰에서 "경쟁자이기에 앞서 사랑하는 동료이기 때문에 톱3에 함께 올라온 것만으로 행복하다"며 "슈퍼위크 콜라보 미션 당시에는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했지만 (생방송) 솔로 무대는 다르다. 각자의 장점을 살리는 무대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 사람은 경쟁을 잊은 듯 서로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필은 "곽진언은 프로듀싱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라며 "요즘 음악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매력이 있다. 특히 저음의 목소리가 사람들을 매료시킨다"고 말했다. 막내 임도혁에 대해서는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소리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고 칭찬했다.



엠넷 '슈퍼스타K6' 톱3 (왼쪽부터) 김필, 임도혁, 곽진언이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공동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CJ E&M 제공

임도혁 역시 곽진언에 대해 "요즘 찾기 힘든 저음의 목소리와 옛날 감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맏형 김필에 대해서는 "대중성이 확실히 있다"며 "훤칠한 키와 잘생긴 외모가 여심을 사로잡는 것 같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 가진 형"이라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곽진언도 "김필 형은 남자인 내가 봐도 멋있는 사람"이라며 "임도혁 군은 겉모습과 다르게 상당히 귀여운 면이 있어서 친동생 삼고 싶다"고 말했다. 곽진언은 앞서 생방송 진출 당시 김필을 라이벌로 꼽은 바 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가장 친해서"라고 답해 '벗님들'의 우정을 가늠케 했다.

결승전을 코앞에 둔 세 사람은 준결승에 임하는 각오와 우승 소감을 미리 밝혔다.

김필은 "큰 상금이 걸려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이지만 누가 1등을 하는 지 중요하지 않다"며 "'슈스케'에서 가장 좋았던 무대였다는 말을 듣는 게 내 목표다. 그걸 달성할 수 있다면 돈보다 더 큰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선 당시 10kg 감량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임도혁은 "우승상금 중 약 5000만원에서 1억원정도는 헬스클럽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혀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어 "남은 돈으로 우리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사는 게 꿈"이라고 덧붙였다.

곽진언은 앞서 밝혔던 '춤을 추겠다'는 우승 공약을 번복했다. 그는 "춤만 추고 내려가는 건 너무 무성의한 것 같다"며 "추첨을 통해 관객을 초대해 무료 공연을 하고 싶다. 내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선물"이라고 밝혔다.

세 사람은 14일 오후 11시 방송되는 여섯 번째 생방송 무대이자 준결승을 치른다. 우승자는 총 5억원의 상금과 음반 발매, 2014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MAMA)의 특별 무대에 오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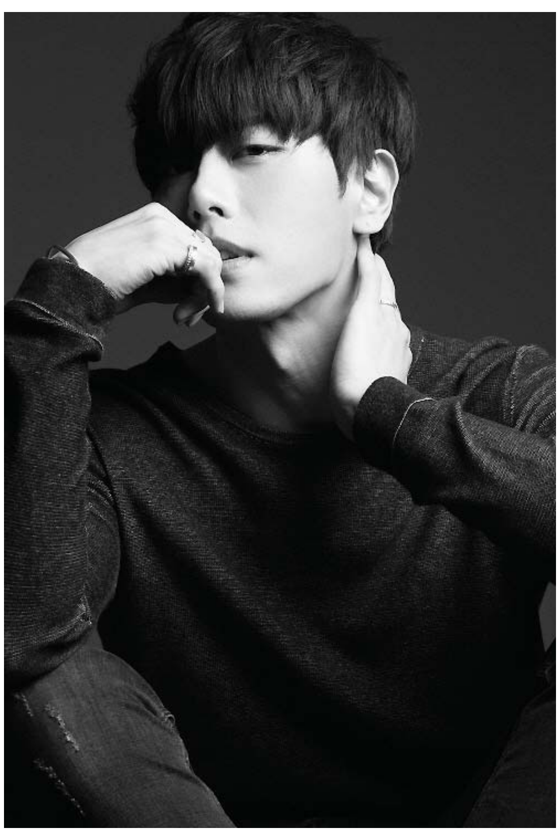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박효신 '해피투게더' 서울공연 1회 더

"팬들 성원에 힘입어 추가 결정"

가수 박효신(사진)의 라이브투어 '해피투게더' 서울 공연이 1회 추가됐다.

박효신의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12일 박효신의 데뷔 15주년 기념 라이브투어 '해피투게더'의 서울 공연을 팬들의 호응에 힘입어 1회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가 공연 시간은 다음달 12일 오후 8시다. 이에 따라 서울공연은 다음달 12~14일 사흘 동안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총 3회 개최된다.

박효신의 라이브투어 '해피투게더'는 지난달 15일 티켓 오픈 이후 10분 만에 전화·전석이 매진되며 뜨거운 인기를 모았다. 또 지방 공연 티켓 역시 오픈과 동시에 매진됐다.

소속사는 "티켓을 미처 구하지 못한 팬들의 문의와 공연 추가 요청이 많았다"며 "박효신 역시 데뷔 15주년을 함께 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팬들과 더욱 많은 만남을 갖고자 해 추가 공연이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조경기장 대관일정과 공연 준비기간 등을 검토한 결과 1회 추가 공연이 연출적·기술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며 "이번 라이브 투어 타이틀인 '해피투게더'처럼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공연을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추가 공연 티켓은 오는 17일 오후 8시 인터파크에서 예매 가능하다. /김지민기자



(왼쪽부터 차례로) 강인·김장훈·이특. /공연세상 제공



김장훈, 2년 만의 신곡 '살고 싶다'

자선 마라톤 담은 뮤직비디오로 기부금 전달

가수 김장훈(사진)이 2년 만에 신곡을 발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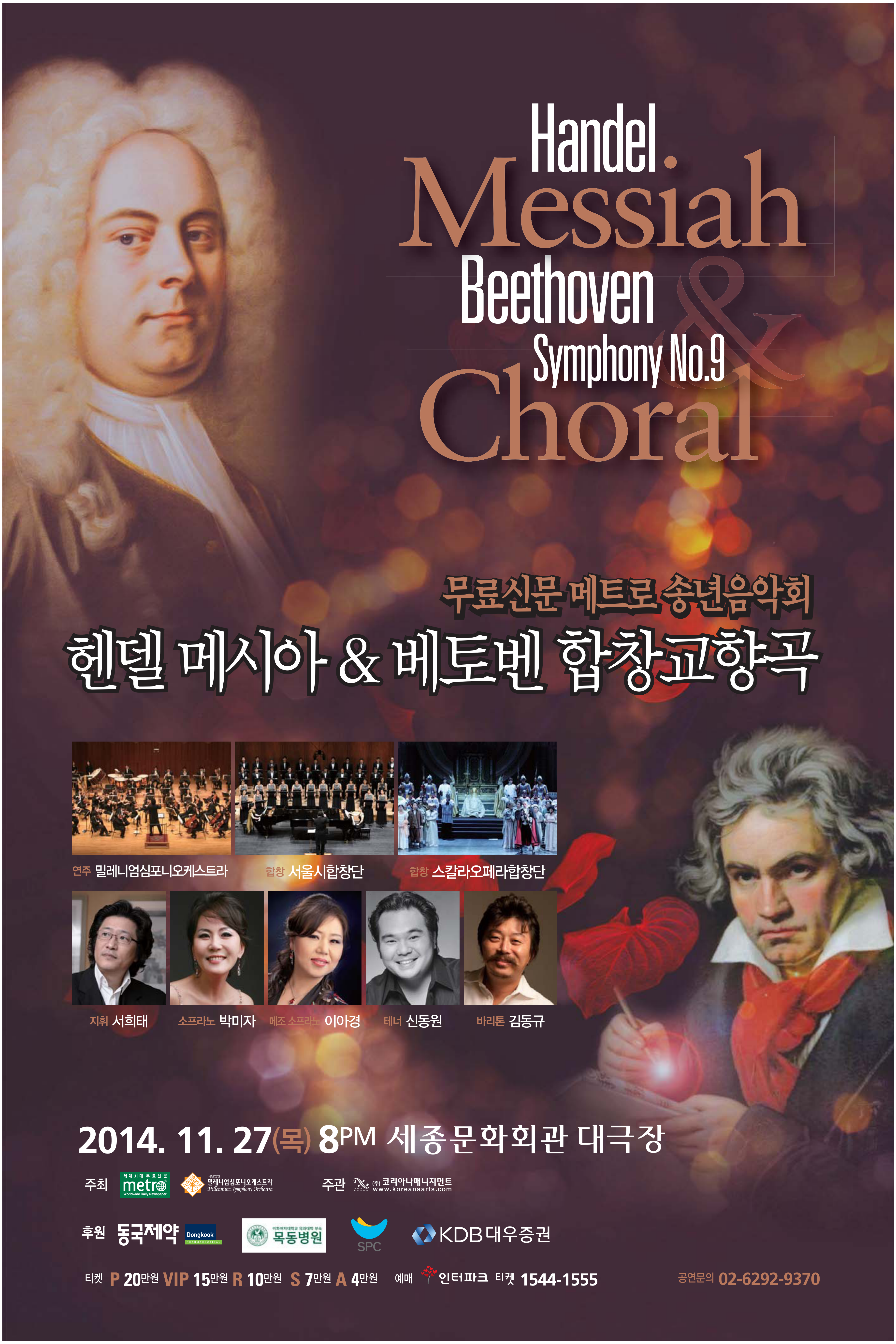
김장훈의 소속사 공연세상은 김장훈이 오는 18일 정오께 신곡 '살고 싶다'를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소속사는 "이번 신곡은 김장훈 표 록발라드"라며 "제목은 파격적이고 강렬하지만 어려운 시절에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울 수 있는 희망의 노래"라고 설명했다.

신곡 뮤직비디오는 '1원의 기적, 다시 뛰자'를 주제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해 김장훈과 함께 달리는 모습을 담을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각자 1㎞씩 뛰고 1m당 1원씩 총 1000원을 기부 받아 최종 적립금액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소속사 측은 "뮤직비디오를 통해 적립된 금액은 여러 이유로 뛰고 싶어도 뛸 수 없는 어려운 이들에게 기부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과 이특이 첫 주자로 마라톤을 시작했으며 가수 성시경과 배우 김보성도 함께했다. 12일에는 마라토너 이봉주도 참가해 경기도 천안 봉주로에서 '1원의 기적 레이스'를 펼쳤다. 또 스케이팅 선수 이규혁, 걸그룹 걸스데이와 크레용팝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김장훈은 "어제 곡에 대한 모든 작업을 마쳤다. 한 곡에 쏟은 시간이 두 달에 이를 만큼 정성을 들여서 매우 만족 한다. 감히 '내 생애 최고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다"며 "내 노래를 기다려준 팬들에게 자신 있게 내놓을 것이다. 특히 힘들었던 올 한 해였던 만큼 사람들에게 노래를 통한 진정한 '힐링'과 삶의 희망을 선물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지민기자


Handel
Messiah
Beethoven
Symphony No.9
&
Choral
무료신문 메트로 송년음악회
헨델 메시아 & 베토벤 합창교향곡
연주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합창 서울시합창단
합창 스칼라오페라합창단
지휘 서희태
소프라노 박미자
메조 소프라노 이아경
테너 신동원
바리톤 김동규
2014. 11. 27(목) 8PM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세계최대 무료신문 metro Worldwide Daily Newspaper
사단법인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Millennium Symphony Orchestra
주관 (주) 코리아나매니지먼트 www.koreanaarts.com
후원 동국제약 Dongkook PHARMACEUTICAL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SPC
KDB대우증권
티켓 P 20만원 VIP 15만원 R 10만원 S 7만원 A 4만원
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공연문의 02-6292-9370

남상미 목소리로 재능기부

EBS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내레이션 참여



배우 남상미(사진)가 목소리로 재능기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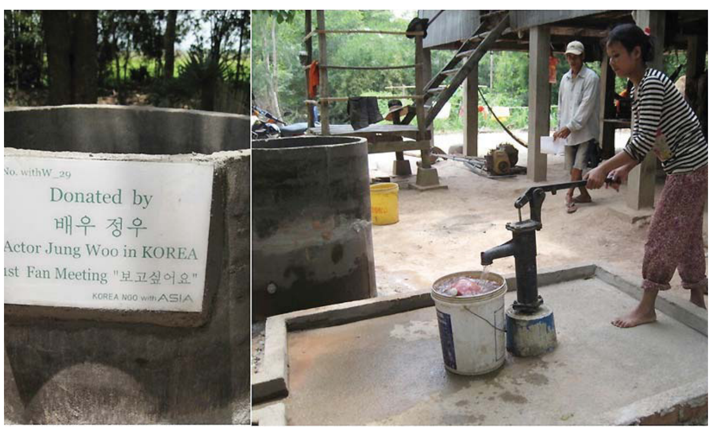
남상미는 오는 14일 오후 8시20분 방송되는 EBS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몽골 편 '몽골, 쓰레기 마을에 사는 엄마와 딸' 내레이션을 맡는다. 2010년 폭설과 한파로 생활 터전을 잃고 도시로 와 쓰레기장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엄마 자라갈스와 딸 오츠크의 이야기를 전한다.

자라갈스는 병이 악화돼 집에 누워 생활할 수밖에 없는 남편과 가족을 위해 일한다. 딸 오츠크는 어린 나이에 살기 위해 쓰레기장에 가야 한다. 모녀의 안타까운 사연은 남상미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와 어우러져 시청자에게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상미 측은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의 내레이션 제안을 받아 기뻤다"며 "어려운 생활 속에서 일찍 철든 오츠크의 가슴 아픈 이야기에 남상미가 진심을 담아 내레이션에 참여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남상미가 참여한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은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전 세계 아이들을 밀착 취재해 기부 프로그램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방송이다.

/전효진기자



배우 정우의 팬들이 기증한 캄보디아의 우물. /위드아시아 제공

캄보디아에 생긴 '정우 우물'

첫 팬미팅 기념해 팬들이 기증해 화제



배우 정우(사진)의 이름을 딴 우물이 생겼다.

정우의 팬들은 지난 8월 23일에 열린 첫 번째 팬미팅 '보고 싶어요'를 기념하기 위해 캄보디아 벙끄롭떡 마을에 우물을 기증했다.

벙끄롭떡 마을은 진입이 쉽지 않아 우물이나 화장실 지원이 어려운 곳 중 하나다. 특히 주민 대부분이 깨끗한 물을 마시기 어려워 웅덩이에 고인 빗물을 사용하고 있어 각종 수인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의 팬들은 벙끄롭떡 마을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지원하고자 공용 우물을 설치했다.

비정부단체(NGO) 위드아시아의 한 관계자는 "벙끄롭떡 마을에 만들어진 정우의 우물을 통해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있다"며 "팬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마을 주민들이 정말 기뻐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정우는 영화 '쎄시봉' 촬영을 마치고 영화 '히말라야'에서 고(故) 박무택 대원 역으로 캐스팅돼 촬영을 앞두고 있다.

/전효진기자

신인 여배우 사극으로 인지도↑

실력 입증 당찬 각오…"도도한 매력으로 눈도장"



윤소희



임수현

신인 배우 윤소희와 임수현이 사극에서 기생 역할로 신스틸러에 도전한다. 도도한 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겠다는 각오다.

윤소희는 지난해 데뷔한 이후 '식샤를 합시다' '빅맨' '연애 말고 결혼' 등의 드라마에 출연하며 차근차근 연기력을 쌓아 왔다.

SBS 월화극 '비밀의 문'으로 처음 사극에 도전하는 그는 10대 배우 김유정의 뒤를 이어 성인이 된 서지담을 연기한다. 아버지 서균(권해효)의 억울한 죽음 이후 진실을 믿고 정의를 쫓던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사는 기녀 빙애로 지난 14회부터 등장했다. 현재 세자 이선(이제훈)과 재회한 후 궁녀가 돼 신분을 속이고, 이선을 위협하는 무리로부터 그를 지키고 있다.

'비밀의 문'의 한 관계자는 "김유정이 보여줬던 서지담이 정의롭고 호기심 많은 소녀였다면 윤소희가 그려낼 서지담은 죽은 아버지를 향한 한을 가슴에 품은 의문스러운 여인"이라며 "이선과의 아슬아슬한 관계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임수현은 오는 19일 첫 방송되는 KBS2 수목극 '왕의 얼굴'에 출연한다.

그는 지난해 드라마 '내 딸 서영이'로 데뷔한 뒤 '지성이면 감천' '감자별2013QR' '로맨스가 필요해' 등을 통해 연기 내공을 쌓았다. 연극 '버지니아 그레이의 초상'에 도전하며 차세대 기대주로 손꼽히고 있다.

임수현은 '왕의 얼굴'에서 여주인공 김가희(조윤희)의 친한 친구이자 조력자인 기생 송월 역을 맡았다. 송월은 요정 진주각을 주름 잡는 도도한 기녀다.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출신다운 화려한 춤 실력으로 제작진의 시선을 사로잡아 송월 역에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수현의 독무는 작품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임수현은 "데뷔 후 끊임 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있다"며 "기생 역할인 만큼 전공을 살려 시청자의 눈도장을 찍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비, 차기작은 중국 드라마

'다이아몬드 러버'… 개런티 60억원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사진)가 약 60억원의 개런티를 받고 중국 드라마에 출연한다.

비의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종영한 SBS 수목드라마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에 출연했던 비가 차기작으로 중국 드라마 '다이아몬드 러버(가제)'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비는 이번 드라마에 약 60억원의 개런티를 받고 출연한다. 드라마 관계자는 "중국에서 비의 스타성과 인지도를 감안해 파격적인 대우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다이아몬드 러버'는 대만 하이틴 드라마 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명중주정아애니'의 감독 진명장이 메가폰을 잡았다. '명중주정아애니'는 MBC 인기드라마 '운명처럼 널 사랑해'의 원작으로 대만 원작과 한국 리메이크작이 모두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비는 극중 세계 최고 다이아몬드 회사의 대표 소량을 연기한다. 소량은 전형적인 엘리트로 신사답고 완벽해 보이지만 사람을 경계하고 모든 일에 이해득실을 계산하는 차가운 남자다. 드라마를 통해 차가운 남자에서 진실한 사랑을 찾아가는 로맨스 가이로 변해간다.

비의 상대역으로는 중국 배우 탕옌이 캐스팅됐다 .탕 옌은 '금옥량연' '선검기하전 3' '하가삼천금' 등의 작품에 출연한 인기 배우다.

한편 '다이아몬드 러버'는 내달 초부터 중국 상하이·난징, 벨기에, 서울 등에서 촬영한다.

/김지민기자 langkim@

스타의 연기 변신·거장들 신작 기대

이십세기폭스 2015년 라인업 공개

'박물관이 살아있다3' '테이큰3' 등 시리즈 속편 리즈 위더스푼·마이클 키튼 등 연기파 작품도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 이십세기폭스가 12일 오전 서울 CGV 왕십리에서 로드쇼 행사를 갖고 2015년 상반기 라인업을 공개했다. 스타 배우의 연기 변신, 블록버스터 시리즈 속편, 그리고 거장 감독의 신작 등 다양한 작품들이 내년 극장가를 찾는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개봉하는 영화는 내년 1월 개봉하는 '박물관이 살아있다: 비밀의 무덤'이다. 2006년과 2009년에 개봉한 가족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으로 전작에 이어 벤 스틸러·로빈 윌리엄스·오웬 윌슨 등이 출연한다. 이번에는 영국 런던의 대영박물관으로 무대를 옮겨 보다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펼친다. 지난 8월 세상을 떠난 로빈 윌리엄스의 유작이기도 하다.

리암 니슨의 액션 시리즈 '테이큰3'도 내년 1월에 개봉한다. 뤽 베송 감독이 제작한 '테이큰' 시리즈는 2008년과 2012년 개봉한 1편과 2편이 모두 약 230만 관객을 동원한 흥행작이다. '테이큰3'는 시리즈의 최종 완결편으로 '테이큰2'의 올리비에 메가턴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금발이 너무해' '앙코르' 등의 작품으로 잘 알려진 리즈 위더스푼이 주연을 맡은 '와일드'도 내년 1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매튜 맥커너히에게 남우주연상을 선사한 영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의 장 마크 발레 감독의 신작이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4258km에 달하는 특별한 여정을 떠나게 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리즈 위더스푼의 연기 변신을 볼 수 있다.

내년 2월에는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의 매튜 본 감독의 신작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이하 '킹스맨')와 '21그램' '바벨'의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의 신작 '버드맨'이 개봉한다. '킹스맨'은 콜린 퍼스·태런 에거튼 주연의 첩보 액션 영화다. '킹스맨'은 과거의 명성을 잃은 한 배우의 이야기로 마이클 키튼·에드워드 노튼·엠마 스톤·나오미 왓츠 등이 출연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다음달 3일 전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봉하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의 하이라이트 영상도 공개됐다. 형제에서 적이 된 두 남자 모세스와 람세스의 대결을 그리는 대서사극으로 웅장한 스케일, 압도적인 전쟁 신, 그리고 크리스찬 베일·조엘 에저튼의 연기 대결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김우빈, 섹시한 금고털이로

'기술자들' 통해 스크린 컴백…"쫄깃한 영화"

배우 김우빈(사진)이 영화 '기술자들'(감독 김홍선)을 통해 섹시한 금고털이 기술자로 변신한다.

드라마 '학교 2013'과 '상속자들', 그리고 영화 '친구2'로 라이징 스타로 떠오른 김우빈은 '기술자들'로 2014년 연말 스크린 점령에 나선다.

'기술자들'은 동북아 최고 보안을 자랑하는 인천세관에 숨겨진 검은 돈 1500억원을 제한시간 40분 안에 털기 위해 모인 기술자들의 이야기 그린 영화다. 김우빈은 어떤 금고든 열 수 있는 업계의 '마스터키' 지혁 역을 맡았다.



극중 지혁은 금고털이는 물론 비상한 두뇌로 위조와 작전 설계까지 못하는 것이 없는 멀티 플레이어다. 3D프린터로 가짜 봉황상을 5억짜리 진짜로 둔갑시키고 최고 보안을 자랑하는 보석상도 치밀한 작전으로 순식간에 털어내는 인물이다.

특히 보안요원의 눈을 피하기 위해 로프 한 줄에 몸을 매달고 빌딩 사이를 넘나드는 모습은 '도둑들'에서 전지현이 연기한 예니콜을 연상시킨다. 섹시한 여자 도둑 예니콜의 뒤를 이을 섹시한 남자 기술자의 탄생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우빈은 "시나리오를 재미있게 읽었다. 감독님과 미팅을 하면서 어떤 색깔로 영화를 만들어 나갈지 설명해주는 파이팅 넘치는 모습에 확신을 가졌다"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 또한 "한 시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끝까지 쫄깃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영화"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기술자들'은 '공모자들'로 제33회 청룡영화상 신인 감독상을 수상한 김홍선 감독의 차기작이다. 오는 12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

/장병호기자

수능 수험생 위한 극장가 이벤트

할인 혜택부터 배낭여행까지 '풍성'

극장가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를 실시한다.



CGV는 13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토닥토닥 충전타임'(사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오감충전 배낭여행'과 '에너지충전 무비파티'로 구성됐다.

'오감충전 배낭여행'은 할인 관람 혜택과 홍콩·마카오 배낭여행 상품권 응모 기회를 제공한다. 극장 매표소에 수험표를 제시하면 6000원에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 해외 미션을 함께 수행할 친구 5명을 모아 CG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CJ ONE 회원만 참여 가능하다.

'감성충전 무비파티'는 영화 '명량' '해적' 등 2014년 주요 상영작을 CGV의 주문형 상영 서비스로 원하는 날짜에 맞춰 볼 수 있는 행사다. 18~27일 CGV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영화·극장·날짜를 선택해 신청해 투표에서 150명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상영이 확정된다. 투표 참여 고객 전원에게는 '무비파티' 5000원 관람 쿠폰을 증정하며 100명을 추첨해 엠넷 음원 상품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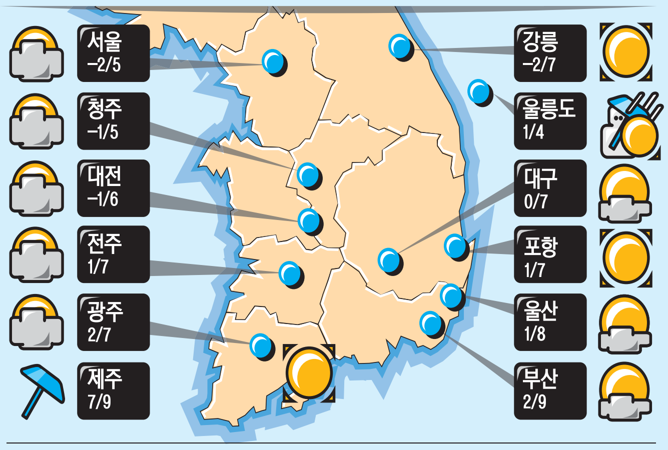
롯데시네마는 같은기간 '굿 럭 투' 이벤트를 통해 할인 서비스를 한다. 수험표를 제시하면 본인에 한해 2D 영화를 6000원에 관람 가능하다. 싱글콤보(팝콘·음료 세트)도 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메가박스는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수험표를 지참한 관객에 한해 1일 1회 일반 2D 영화를 5000원에 관람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비수능회담' 이벤트를 벌인다. 매점에서 콤보 메뉴도 2000원 할인한다. /장병호기자

날씨

11/13木 일출시각 07:09 일몰시각 17:23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매일 햇빛을 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건강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또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산소 섭취량을 늘려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3	4		8
8				2		5		
1					9		2	
3	9							
		4				1		
							6	4
	8		6					2
		2		8				9
6		1	4	9				

				5		7	2	
		5		2		6		4
3	2		7				9	
	3	6			2			
9								2
			1			9	3	
	1				9		6	5
5		8		7		2		
	4	2		1				

스도쿠 정답

2	6	7	1	5	3	4	9	8
8	4	9	7	2	6	5	3	1
1	5	3	8	4	9	7	2	6
3	9	6	5	1	4	2	8	7
7	2	4	9	6	8	1	5	3
5	1	8	2	3	7	9	6	4
9	8	5	6	7	1	3	4	2
4	7	2	3	8	5	6	1	9
6	3	1	4	9	2	8	7	5

1	6	9	4	5	8	7	2	3
8	7	5	9	2	3	6	1	4
3	2	4	7	6	1	5	9	8
4	3	6	5	9	2	1	8	7
9	8	1	6	3	7	4	5	2
2	5	7	1	8	4	9	3	6
7	1	3	2	4	9	8	6	5
5	9	8	3	7	6	2	4	1
6	4	2	8	1	5	3	7	9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일본의 합격기원 음식, 돈가스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우리는 시험 볼 때 합격을 기원하며 엿이나 찹쌀떡을 먹는다. 엿과 찹쌀떡 모두 끈적끈적 잘 달라붙으니 그 성질처럼 철썩 붙으라는 뜻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보다 깊은 뜻이 있다. 엿은 기쁨을 상징하는 음식(飴)이니 합격의 기쁨을 맛보라는 의미이고, 찹쌀떡(大福餠)은 합격의 복을 누리라는 뜻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으며 합격을 소원할까? 일본은 우리처럼 엿이나 찹쌀떡을 먹지만 돈가스를 먹기도 한다. 돈가스를 먹으면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유는 돈가스라는 이름 속에 합격의 소원을 이뤄줄 열쇠가 있기 때문이다.

돈가스는 돼지 돈(豚)과 커틀릿(Cutlet)의 일본식 발음인 가스의 합성어다. 그런데 승리하다라고 할 때의 이길 승(勝)자도 일본말로 가스(かつ)라고 읽는다. 돈가스의 '가스'와 이긴다고 할 때의 '가스'가 발음이 같다. 그러니 시험 보는 날 돈가스를 먹으면 시험지와 싸워 이길 수 있으니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돈가스에 합격의 소원을 담게 된 이유다.

곁들여 먹으면 좋은 음식도 있다. 바로 스테이크다. 돈가스와 스테이크를 함께 먹으면서 반드시 합격, 내지는 승리하겠다는 필승의 의지를 다짐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 역시 재미있다.

스테이크(Steak)는 일본말로 스데키(ステキ)다. 줄여서 데키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물리쳐야 할 상대편인 적(敵)도 일본말로 데키(テキ)다. 때문에 돈가스와 스테이크를 함께 먹으면 적을 물리쳐서 승리한다는 의미가 된다.

원래는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앞두고 회식할 때 필승을 다짐하며 상대편을 물리치고 승리하겠다는 뜻에서 돈가스와 스테이크를 먹은 것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시험지를 적으로 삼아 싸우는 수험생 역시 반드시 합격하겠다는 의지로 돈가스와 스테이크를 먹게 됐다는 것이다. 얼핏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어느 나라나 합격 기원 음식에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

/음식문화평론가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부인과 이혼하고 재혼하면 잘살까요
피곤한 시기… 행·불행 요인은 본인에

Q hynin 남자 75년 12월 7일 양력 아침
여자 78년 8월 29일 오후

제가 2년전 메트로에 회원으로 등록할 때 만해도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만으로도 회원 등록이 되어 상담 의뢰 하는 것이 쉬웠는데 지금은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아이핀이나 공증을 이용하여 등록을 해야 하고 동거인의 인적 사항도 넣어야 되는 바람에 상담을 의뢰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나 등록이 어려워서 이번에도 제가 대신 친지의 사주상담을 올립니다. 40세 남자이고 12월 7일이 아침이며 10년 전에 결혼 한 현재 부인(37세 8월 29일 오후)과 성격이 맞지를 않아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재혼할 상대 여성은 38세 9월27일 생입니다. 잘 될까요?

A 사람들이 대부분 원하는 것은 재물과 성품 그리고 권력일 것입니다. 인수(印綬)와 관성(官性)과 재성(財性)이 정격(正格)을 이루는 사주는 그러한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사주라 할만 합니다. 문무백관 중 가장 높은 자리인 정승에 오르려면 사주에 정인과 정관 정재를 갖추면 이루어지는데 권세와 명예가 함께 있는 사주라는 의미입니다. 세 요소가 운세의 틀을 단단하게 잡아줘 서로 북돋우는 효과를 냅니다.

좋은 사주가 있으면 반대로 좋지 않은 사주도 있습니다. 사주에 정격(正格)의 기운이 없거나 인성과 재성 관성이 있다하더라도 충(衝)이나 파(破)가 있을 때는 좋은 기운이 힘을 얻지 못합니다. 성품도 좋지 않아서 성격이 거칠고 이런 경우에는 귀한 사람이 되기 힘듭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사주가 좋나 나쁘냐에 쏠려있습니다. 궁금해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누군들 좋은 사주를 제쳐놓고 나쁜 사주를 갖고 싶을까요. 자신에게 좋은 사주가 있고 그 사주에 따라 풍요로운 인생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사주가 좋다고 무조건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운세는 어느 시기에만 기운을 내지만 인품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 배어있는 것이며 시시때때로 자신의 복으로 바꿔어 돌아옵니다.

선함과 성실함은 살아가는 이치인데 근본적 이치를 따르는 사람은 행복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미래의 행복함을 바라기 전에 평온한 인품으로 살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인이 살고 있는 현실은 '피곤한 시기'이며 부부는 자신의 사주 안에 돼 있는 것이므로 결혼생활의 파란만장과 행불행의 요인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니 이혼하고 재혼한들 잘될 수가 있겠는지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1월 13일 (음 (윤)9월 21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남서쪽이 행운의 방향이다. **60년생** 자신의 속마음을 속이지 말라. **72년생** 눈물 나게 고마운 은인을 만난다. **84년생** 새 일은 혹독한 신고식 각오하라.

49년생 외로울수록 눈을 낮춰라. **61년생** 동남쪽이 행운의 방향이다. **73년생** 깜깜했던 앞날에 희망의 서광이 비추는구나. **85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50년생 신상에 좋은 변화 있다. **62년생** 측근이라고 무조건 끼고 돌지 말라. **74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룬다. **86년생** 운기가 열려 만사형통이로구나.

51년생 아랫사람 일에 개입 말라. **63년생** 성공에 방점을 찍는 경사 생긴다. **75년생** 문서 일은 길게 보고 처리할 것. **87년생** 애교도 도를 넘으면 실례가 된다.

52년생 백번의 말보다 행동 주요하다. **64년생** 통하는 동반자가 생겨서 야호~. **76년생** 상사에 듣고 싶었던 말 듣는다. **88년생** 연인의 옷자락 제때 잡아채라.

53년생 따뜻한 배우자 덕에 해피~. **65년생** 생각이 너무 많으면 전진 못한다. **77년생** 급조한 계획은 더 다듬어라. **89년생** 실패가 두려우면 큰 일 할 수 없다.

42년생 병문안 갈 일이 생긴다. **54년생** 평탄한 길에선 기적이 나오지 않는 법~. **66년생** 아슬아슬 절벽이나 반전 기회 있다. **78년생** 상사 칭찬에 출근이 즐겁구나.

43년생 기대가 커면 실망도 큰 법~. **55년생** 충고도 길면 잔소리가 된다. **67년생** 너무 잘 나가도 문제가 되는 법~. **79년생** 무리수를 두면 악재가 겹친다.

44년생 집안에 웃음꽃 만발한다. **56년생** 지원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할 것. **68년생** 꼬인 일은 역발상이 효과 좋다. **80년생** 연인과 미묘한 입장차에 긴장

45년생 자신감 넘칠 때 조심~. **57년생** 칼은 부러지고 화살도 떨어진 격이다. **69년생** 술자리서 실언 않도록~. **81년생** 눈 높은 판단은 행복의 적이다.

46년생 생각의 균형이 필요하다. **58년생** 마음을 비우니 행복이 찾아오는구나. **70년생** 무명 배우가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격이다. **82년생** 고집은 적당할 때 꺾어라.

47년생 잘못 가고 있을 땐 빨리 포기할 것. **59년생** 선행은 보상 받는다. **71년생** 상대방의 메시지를 잘 파악할 것. **83년생** 계산된 선행은 효과 없다.

김광현의 '200만 달러'… SK "대승적 수용"

MLB 포스팅 응찰액 밝혀져, 류현진의 10% 그쳐
에이전트 통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연봉 협상

프로야구 SK와이번스는 12일 김광현(26·SK 와이번스·**사진**)의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포스팅 결과를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구단은 내부 회의와 김광현과 면담을 통해 선수의 오랜 꿈을 후원해주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포스팅 결과 수용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광현은 "포스팅 결과를 수용한 구단과 김용희 감독을 비롯한 SK와이번스 선수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어렸을 때 꿈꾸던 메이저리그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기회를 잘 살려 실력으로 검증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다. 신인 같은 마음으로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광현은 향후 공식 에이전트인 MDR매니지먼트를 통해 30일 이내에 연봉 협상을 하게 된다. 구단은 김광현의 메이저리그 진출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MLB 진출을 노리는 김광현의 포스팅 최고 응찰액은 알려진 대로 200만 달러(한화 약 21억 9000만원)다. 이 금액은 역대 한국 프로야구 출신 선수가 받은 포스팅 금액 중 두 번째로 높은 액수다. 하지만 류현진(27)이 2012년 11월 LA 다저스로부터 제안 받은 2573만7737달러33센트(한화 약 282억)의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예상했던 것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다. 자존심을 지킬 만한 적정 금액인지에 대한 고심이 하루 넘게 이어졌다. 아울러 SK는 내년 시즌 농사의 시작인 FA(자유계약선수)확보를 위해 여유로운 자금 충전도 필요하다.

지난 11일 삼성 라이온즈의 우승으로 막을 내린 가을야구에 이어 FA 쟁탈전이 핵심인 겨울야구가 시작된다. SK는 이번 FA 시장에 내놓을 선수가 가장 많은 팀이다. 100억 설이 나도는 최정을 시작으로 김강민·나주환·박진만·조동화·이재영 등이 자격을 확보했다. 김광현의 포스팅 액수가 최초 예상했던 1000만 달러 수준이라면 한화 약 110억원 정도로 최정은 여유롭게 잡을 수 있었다. 현재는 이같은 계산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애초 SK는 김광현의 포스팅 금액을 최대 1000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했다. 류현진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낮게 봤지만 실제 받아 든 금액은 그마저도 한참 못 미쳤다.

SK는 지난 11일(한국시간) 오전 KBO로부터 MLB사무국에서 받은 포스팅 응찰액 결과표를 받았다. MLB 진출 도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김광현과 SK는 이날 바로 액수를 공개하지 못했다. 누가 봐도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제스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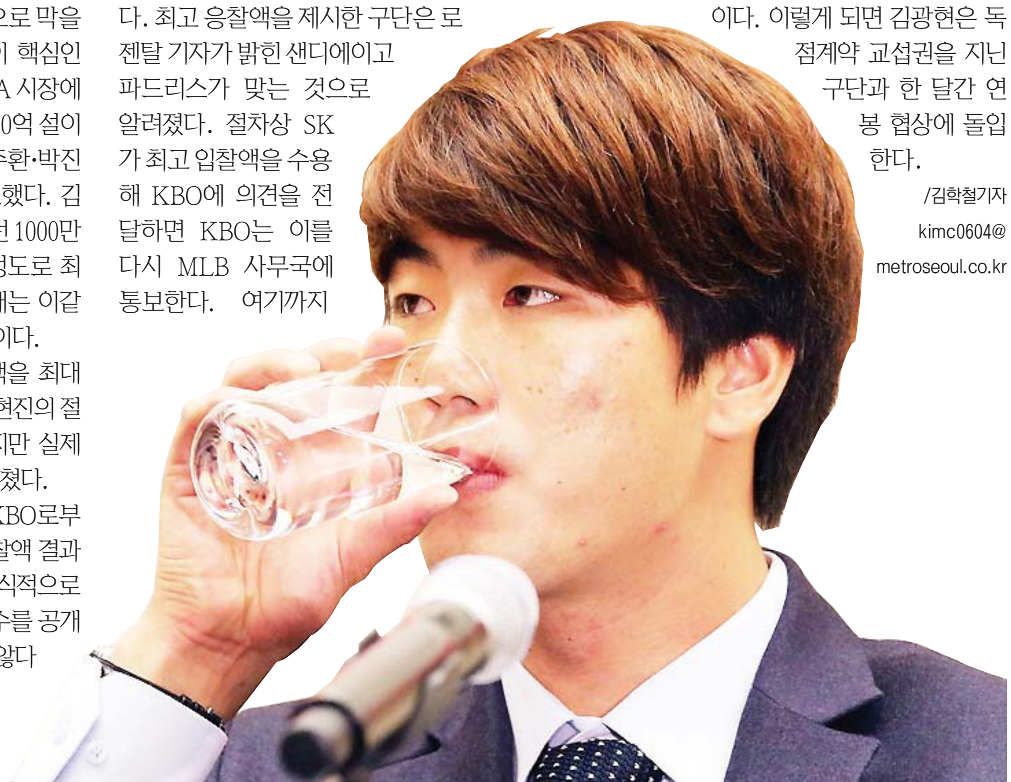
포스팅 금액은 12일 미국 폭스스포츠의 켄 로젠탈 기자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한국인 왼손 투수 김광현을 영입하기 위해 포스팅에 참여했다. 금액은 200만 달러. 그의 소속팀 SK와이번스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팀은 1000만 달러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글을 게재하며 알려지기 시작했다.

SK 구단은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금액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고 이날 오후 수용 의사와 함께 금액을 공개했다. 최고 응찰액을 제시한 구단은 로젠탈 기자가 밝힌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맞는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상 SK가 최고 입찰액을 수용해 KBO에 의견을 전달하면 KBO는 이를 다시 MLB 사무국에 통보한다. 여기까지 진행이 된 뒤 최고액을 제시한 해당 구단을 공개하게 돼있다.

김광현은 지난달 29일 MLB 도전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소속팀과 보직은 상관 없다"며 "나를 진정으로 원하는 팀에 가고 싶다. 원하는 팀이라면 선발이든 중간이든 보직에 상관없이 죽을 힘을 다해 던지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KBO는 SK로부터 받은 결과를 15일 오전 7시까지 MLB 사무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김광현은 독점계약 교섭권을 지닌 구단과 한 달간 연봉 협상에 돌입한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FA 윤성환·안지만, 삼성 남을까

류중일 감독 "다 붙잡고 싶어"… 밴덴헐크는 일본서 눈독

한국 프로야구 통합 4연패를 달성한 삼성 라이온즈가 '겨울 야구'에서도 선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다.

삼성은 4연패 금자탑을 함께 쌓아올린 자유계약선수(FA)와 외국인 선수를 타 구단으로부터 지켜내 전력을 유지하겠다는 각오다. 류중일 삼성 감독도 11일 한국시리즈 우승을 확정한 뒤 FA 5명을 반드시 잡고 싶다고 의지를 밝혔다.

삼성에는 투수 4명과 내야수 1명을 포함해 5명의 예비 FA가 있다. 선발 윤성환(33)과 배영수(33), 불펜 안지만(31)과 권혁(31), 내야수 조동찬(31)이 FA 권리 행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들은 나이에 비해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어서 FA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윤성환과 안지만은 FA 최대어로 주목받는다. 윤성환은 2011년부터 올 시즌까지 4년 동안 총 48승(26패)을 기록하며 국내 프로 선수 중 세 번째로 많은 승수를 쌓았다. 2011~2014 시즌 평균자책점은 3.57로 같은 기간 한국 프로야구에서 뛴 선수 중 니퍼트(3.25)에 이어 두 번째로 좋은 기록을 냈다.







윤성환·안지만·릭 밴덴헐크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안지만은 자타공인 한국 최고 불펜 투수다. 올해 아시안게임 결승전과 정규리그 우승 확정일에도 등판해 승리투수가 되는 영예를 누리면서 큰 경기에 강한 '빅게임 피처'로 더 주목받았다. 안지만은 2010~2014년 5년 연속 45경기 이상 등판하며 흔들림 없이 팀을 지켰다. 최근 5년 동안 안지만의 성적은 279경기 33승 15패 102홀드 평균자책점 2.82다.

윤성환과 안지만은 올해 각각 4억5000만원과 4억1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한편 삼성의 1선발 릭 밴덴헐크(29)의 거취도 관심사다.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라쿠텐 골든이글스·소프트뱅크 호크스 스카우트가 한국을 찾아 밴덴헐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철기자

'슈틸리케 2기' 치열한 주전 경쟁

중동 평가전은 마지막 기회… 전 포지션 대상

중동원정에 나선 한국 축구국가대표팀의 주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2일(이하 한국시간) 요르단 암만 근교 자르카의 프린스 모하메드 국제경기장에서 중동 원정 첫 훈련을 소화했다. 11일 오후 6시께 숙소에 짐을 푼 대표팀은 숨만 돌리고 훈련장으로 향했다. 가볍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선수들은 실전과 다름없이 바쁘고 거칠게 훈련을 소화했다.

2차례에 걸친 이번 중동 평가전은 대표팀이 아시안컵을 앞두고 치르는 마지막 경기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슈틸리케 감독의 눈도장을 받을 마지막 기회다.

이번 중동 원정을 함께 하는 대표팀에는 최전방 공격수부터 최후방 골키퍼까지 전 포지션에 걸쳐 누구 한 명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이동국(35·전북)과 김신욱(26·울산)이 부상으로 빠진 최전방 공격수에는 '29세 동갑내기' 박주영(알 샤밥)과 이근호(엘 자이시)가 경쟁을 한다. 대표팀은 최전방에 한 명의 공격수를 세우는 포지션 플레이 대신 제로톱(가짜 공격수) 전술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슈틸리케 1기 황태자'로 평가받는 남태희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를 놓고 구자철(25·마인츠)과 경쟁한다. 홍명보 전임 감독에게 낙점된 홍정호(25·아우크스부르크)의 합류로 중앙 수비수 자리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기존 곽태휘(33·알 힐랄)-김영권(24·광저우 에버그란데), 김영권-김주영(26·서울) 등 다양한 조합을 시험하던 중에 옵션이 한 가지 더 늘어난 셈이다.



정성룡(29·수원)·김승규(24·울산)·김진현(27·세레소 오사카)으로 이뤄진 골키퍼 자리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날 훈련에서 골키퍼들은 필드 플레이어로 합류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이들 모두를 '제로 베이스'에서 평가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표팀 황태자부터 신입까지 계급장을 뗀 무한 경쟁이 시작됐다.

한편 대표팀은 14일 오후 11시30분 암만의 킹 압둘라 경기장에서 요르단과 평가전을 갖는다. /김학철기자

프로배구 전적 12일

GS칼텍스	2	3	IBK기업은행
우리카드	1	3	현대캐피탈

프로농구 전적 12일

삼성	14	11	24	11	60
KT	21	22	20	21	84
전자랜드	21	18	21	13	73
SK	13	27	23	23	86


SAMSUNG
야구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통쾌한 홈런에 아이는 새로운 꿈을 꾸었고
불 같은 강속구에 샐러리맨은 지친 하루를 달랬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보내주신 뜨거운 함성 덕분에
2014년 대한민국 야구는 더 행복했습니다
야구팬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 뛰고 더 땀 흘리겠습니다
KOREAN SERIES 2014 CHAMPIONS 8
삼성라이온즈 2014 한국시리즈 우승!
SAMSUNG